1959

소 년 단

1959. 1

1959년 새해의 승리를 향하여!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59년 1호 내용

설 노래

박 세 영

1. 내 어렸을 때 설이란

내 어렸을 때 설이란
너무 설어서 설이였지,
어머니 아버지 애태우던
서글픈 설이였지.

까치 설 날밤 어둔 골목으로
《복조리》 장수 지나가면,
뗑뗑 울리는 제야의 종소리
가난한 사람들 울부짖음 같았지.

돼지처럼 욕심부리고,
거머리처럼 빨아 먹은
부자'집들이야 새옷 짓느라
설 차리느라 밤을 샜지.

누데기처럼 진 빚에
배겨날 수 없던 우리집,
그믐날 하루 종일은
빚받이'군만 문'간에서 들썼지.

달그락 거리던 왜놈들 《게다》소리,
경찰들 칼소리 떰해서야
빈손으로 돌아 오신 아버지,
그 마음 어떠했으랴.

어머니는 까치 설날 밤도,
지주네집 일 갔다
터덜터덜 돌아 왔으니
어머니 그 마음 어떠했으랴.

내 어렸을 때 설이란
정말 설어서 설이였지,
들기름 먹인 《징신》도 못사
눈물 나던 설이였지.

2. 너희는 어떻게 설을 맞니?

불쌍한 남반부 아이들아
너희는 어떻게 이 설을 쉬니?
강도 미군놈들이 들싸는
어둠의 거리에서 쉬니.

게딱지 같은 판자'집과
쓸어져 가는 오막사리에서
떨어진 헌 옷을 입은 채
억울하게 이 설을 쉬니.

창구멍으로 몰려 드는 찬바람은
미국놈들, 앞잡이놈들 입김 같은데,
우쭐대는 놈들의 자식들
그 꼴을 어떻게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애를 써도
찬방에서 서러운 한 살 더 먹는데,
50만의 전쟁 고아들은
어느집 처마 밑에서 새해를 맞니.

사회주의 지상 락원 꾸미는
북반부 아버지 어머니들,
더 없이 뜨거운 품이
지금도 너희를 기다리지 않니.

그런데 살인귀 미국놈들은
흐터진 조약돌처럼 너희를 짓밟고,
리 승만 매국 도당놈들은
너희를 죽으라 내치지 않니?

새해에는 강도 미군놈들이 물러가야
우리 행복 너희와 같이 나누지,
북반부 아이들처럼 너희도
영웅 조선의 꽃봉오리로 되지.

3. 우리의 즐거운 설이 왔구나

아이들아 너희에겐
정말 즐거운 설이 왔구나.
아버지도 아이들처럼
즐거운 설이 왔구나.

아름다운 우리 나라
살기 좋은 우리 세상,
어서 크고 싶은 너희들을
새해 붉은 해'발이 비쳐주누나.

행복 받은 아이들아
너희는 누구나 학교에 가지,
동생들은 솜동복 타 입고,
형님 누나들은 외투 타 입고.

흰눈 우에서도 뛰지
붉은 넥타이를 날리며,
너희는 추위도 모르라고
당의 품은 너희를 안아 주셨지.

너희가 가는 길에
꽃밭을 펼쳐 주고,
너희가 놀며 배울 곳에
화려한 아동궁전을 지여 줄 새해.

새해를 맞는 아이들아,
당의 뜨거운 품이,
수령님의 뜨거운 손길이
너희를 쓰다듬어 주시니.

아이들아 너희에겐
정말 즐거운 설이 왔구나,
희망으로 몽울진 꽃봉오리
맹세로 꽃펴날 설이 왔구나

수령님의 어린 전사로!

한 설 야

수령님은 어린이들을 가리켜 우리 나라의 꽃봉오리라 하셨다. 꽃봉오리란 화려한 미래를 가진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다시말하면 장차 꽃이 활짝 피여 아름답고 열매까지 맺는것처럼 그러한 미래를 가지고 오늘에 있어서도 귀엽고 아름다운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수령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꽃봉오리 같은 소년만이 우리 나라의 자랑으로 될 수 있고 또 수령님의 어린 전사로 될수 있다.

우리 어린이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되여야 한다. 그러나 희망만 가지고는 이렇게 되여지지 않는다. 이 자랑 찬 전사로 되는 일은 결코 구호나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되자면 정신을 기울여 배우고 또 배워서 아는것이 많아야 한다. 아는 것은 곧 힘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아직 부족하다. 아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아는 것을 무슨 일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그저 머리로 아는 것만은 진실로 아는 것이 못된다. 몸소, 그대로 할 줄을 알아야 진실로 아는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며 일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다. 그렇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소년들을 꽃봉오리처럼 아름답고 뜻 높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되도록 가르치며 기르고 있다. 진정 우리 나라의 소년들은 나라와 수령님의 훌륭한 전사로 자라고 있다.

우리 소년들이 앞으로 할일은 매우 많다. 고상하고 가치있는 일들이 우리 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진실로 이 사회는 아직 우리가 살아본 일이 없는 전연 새로운 인간 사회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맑스와 레닌과 같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과 그리고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이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 가르쳐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사회로 빨리 가기 위해서 인민들의 선두에서 그 어려운 길을 고난과 싸우면서 열어 주었다.

그 덕으로 우리는 오늘 사회주의 높은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벌써 지난날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름다운 생활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날을 위하여 어떻게 싸웠는가? 우리는 안다. 우리 수령님과 수령님을 따른 우리 인민들의 싸움을…수령님은 조선 사람을 불행과 암흑으로 몰아넣는 일제와 오랜 시일에 걸쳐 줄기차게 싸우셨다.

또 조선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드는 자본가 지주를 반대하여 싸우셨다.

이것은 어려운 싸움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 사람에게 광명을 비쳐주었고 조선 사람을 앞으로 이끌어 주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싸움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위대한 힘이 우리를 도아 주었다.

해방후 수령님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인민의 정권을 세우셨다. 인민 정권은 자본가나 지주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청산하여 버렸다.

만일 사회의 일부분에 남의 로동을 착취하거나 토지를 독차지하는 일이 남아 있다면 불피코 자본가와 로동자, 지주와 소작인이 있게 된다. 따라서 착취와 억압이 있게 된다.

해방후 수령님이 창건하고 령도하신 우리 정권은 착취와 억압을 허용하지 않았다. 억압하는 계급을 없애고 동시에 억압 받는 계급을 없애였다.

모든 것이 국가와 인민 자신의 것으로 되였다. 여기서 비로소 사회주의 사회의 문이 열리게 되였다.

수령님은 이 좋은 문을 넓르게 더 넓르게 여는데 있어서 항상 인민의 앞에서 싸우셨다.

태양처럼 인민의 눈과 머리를 밝혀 주시면서 바르게 이끌어 주셨다.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과 당의 령도를 받들고 새 사회를 아름답게 웅장하게 가꾸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리익과 문명과 행복을 주는 그런 일에 모든 사람이 흥겹게 종사하고 있다.

수령님은 인민을 인도하여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셨다. 또 그 일은 언제나 성공하여 오늘과 같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났다.

그러나 우리 소년들 앞에는 새로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나 답보하는 일이 없다. 쉬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새것이 자꾸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라와 인민에게 더 행복하고 부유한 살림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저절로 걸어 오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손수 만들어야 한다.

우리 소년들은 지금 그 일을 손수 하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워야 한다. 배워야 힘이 생긴다. 또 힘이 있어야 일을 한다. 그리고 일을 해야 새로 새것을 연구 해내고 창조해낼 수 있다.

일하지 않고 생각만하는 머리와 손은

성냥가치 하나도 만들어 낼 수 없다. 우리 소년은 이런 사람이 되여서는 안된다.

소년들의 앞에는 좋은 모범이 있다. 소년들의 형님들은 벌써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청년 탄광으로 가고, 청년 발전소 건설장으로 가고 있다.

그 발걸음 소리도 높다.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즐거운 그 노래 소리를 우리 소년들은 듣고 있다.

오늘은 농업 협동 조합 청년들이 로동당의 부름을 따라 밭과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산'골짜기를 가로 막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 물을 리용해서 수 많은 소형 발전소들을 건설하는 일에 참가 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벽이래 전기를 보지 못하던 일부 산'골에는 벌써 전등이 켜지였다.

그때 인민들은 부지중 손을 들어

《수령님 만세!》를 불렀다.

수령님의 전사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을 알았던 것이다. 우리는 수령님에게 보내는 이 만세 소리가 다름아닌 공산주의로 가는 사람의 노래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 한 농촌의 노래가 아니고 전체 인민들의 합창인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 공산주의로 가는 길은 구차하던 우리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동방의 조고만 남의 식민지이던 우리 나라를 자랑 높은 세계의 선진 국가로 만들어 주고 있다.

이 일은 수령님의 모든 전사들이 제게 지워진 일을 보람차게 하는데서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하나의 조고만 실례를 들자.

수령님은 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가를 리용하여 토끼를 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빈터 마다에 피마주를 심으라고 말씀하셨다.

수령님의 어린 전사인 소년들은 글을 읽는 일처럼 기쁜 마음으로 성수나서 이 일에 나섰다.

이 일은 틀림없이 공부를 잘하게 하며 우리 나라와 인민을 잘 살게하는 일과 련결되여 있는 것이다.

로동자나 농민들을 착취해서 배불리 살아오던 자본가나 지주놈들 같으면 이런 일이 재미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수령님의 전사인 오늘의 우리 소년들은 그들과는 전연 다르다. 공동 로동과 공동적인 재보를 만들어 내는 일을 자기들의 영예로운 자랑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일이 또한 즐겁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소년들의 특징이다.

수령님은 우리의 집과 거리와 인민이 살고 일하는 모든 장소를 아름답고 깨끗이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소멸시키고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명랑하게 꾸밀 것을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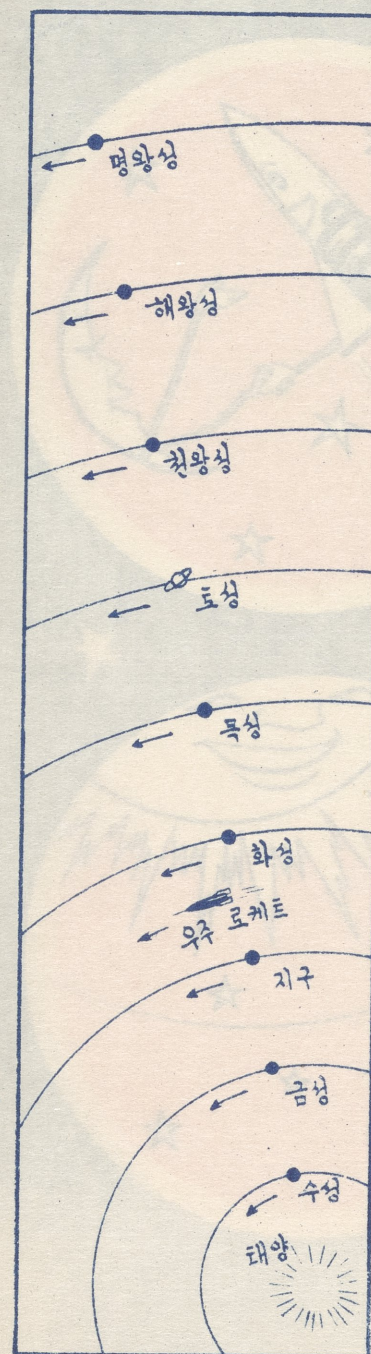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새 출발에서 더러운 것들과 완전히 작별하라는 말씀이다. 꽃다발을 들고 새 사회로 들어가라 하심이다.

오늘의 소년들은 틀림없이 공산주의 사회에 살 것이며 공산주의를 손수 건설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년들은 모름지기 저이들의 일생의 과업이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는 동시에 그런 전사로 자기를 만들어야 한다.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때에만 소년들은 영예로운 수령님의 전사로 될 수 있으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될 수 있다.

쏘련의 우주 로케트가 날고 있는 곳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
화성
우주 로케트
지구
금성
수성
태양

은하수 비낀 아름다운 밤 하늘에 찬연한 금'빛을 온 누리에 뿌리며 떠 가는 둥근달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우주의 비밀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아름다운 꿈을 꾸어 왔다.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고…》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이 노래 속에도 바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달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무한한 동경이 담겨져 있다.

우주의 비밀! 바로 오늘 영원한 우주의 비밀의 문은 열려졌다. 그처럼 알고 싶고 가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의 꿈은 이루워지고 있다. 신비하고도 끝없는 비밀의 세계로만 생각하여 오던 우주의 문은 드디여 위대한 쏘베트 과학에 의하여 활짝 열려진 것이다.

세계 일등가는 과학의 나라 위대한 쏘련은 이미 제1, 제2, 제3 인공 위성들을 련달아 쏘아 올림으로써 우주의 비밀을 알아 내는데 위대한 열매를 거두었었다. 이에 뒤이어 위대한 쏘련은 1959년 1월 2일 또다시 온 세계를 들끓게 하는 우주 로케트를 쏘아 올렸다.

즉 미제국주의놈들이 그처럼 발악을 쓰며 띄워보려다 거듭 실패한 달 로케트 같은 따위는 어림도 없는 위대한 우주 로케트를 쏴 올리는 데 성공 하였다.

온 세계 인민들의 환호속에 우주로 날아오른 우주 로케트는 달세계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 오늘엔 3천만 킬로메터나 먼 곳에 이르러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의 하나로 되였다.

이 얼마나 자랑차고 위대한 일인가! 세계 평화와 온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쏘베트 과학은 드디여 사람들을 래일의 우주 려행에로 준비시키는 일에서 빛나는 열매를 거둔 것이다.

동무들! 그럼 우주 로케트가 지금 날고 있는 곳! 우리들이 래일에 찾아 갈 그곳은 대체 어떤 곳인가를 우리 함께 알아 보기로 하자.

우주에는 수 많은 별들이 있다. 이 중에는 지구상에서의 삶의 원천으로 되는 태양이 있다. 태양은 우리 지구보다 직경이 거의 110배나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영원히 불타고 있는 가스의 알맹이이다.

이 태양은 외롭게 혼자서 우주 공간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 가족들이란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돌아가는 9개의 행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태양의 가족들인 행성들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수성이며 다음에는 금성, 우리의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의 순서로 돌아 가고 있다.

이번 쏘련에서 쏘아 올린 우주 로케트는 바로 이 태양계의 한 가족으로 되여 우리 지구와 화성 사이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우주 로케트는 태양의 행성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우리의 이웃들인 행성들의 크기와 거리를 알아 보기로 하자!

태양을 직경 1m되는 큰 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직경이 1cm정도이며 거리는 이 공으로부터 100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수성은 직경 3.5mm, 거리는 40m에 해당되며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이고 거리는 약 77m에 해당되는 곳에 떨어져 있다. 화성은 160m 이상, 목성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며 크기는 직경 10cm에 해당되는 알맹이들이다. 토성은 직경이 약 8.5cm, 거리는 약 1km에 해당되며 천왕성은 직경 3.5cm, 거리는 약 2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해왕성은 거리 3km, 명왕성은 4km에 해당되는 곳에 떨어져 있다.

오늘 쏘련의 우주 로케트는 이 행성들과 함께 태양의 궤도에 들어서고 15개월을 주기로 하여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다.

벌써 우주 로케트는 달 구역을 날아지나 가면서 전파로 우리에게 우주 공간의 새로운 비밀들을 전해 주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달의 뒤'면을 보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이번 우주 로케트가 전파로 보내준 재료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달의 뒤'면의 모양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달에는 공기와 물이 없다. 달에 가면 지구에서보다 무게가 6분의 1로 가볍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지구 우에서보다 6배나 높은 곳에도 성큼성큼 뛰여 오를 수 있다. 달에서 보는 하늘은 시커멓고 별들은 유달리 아름답게 반짝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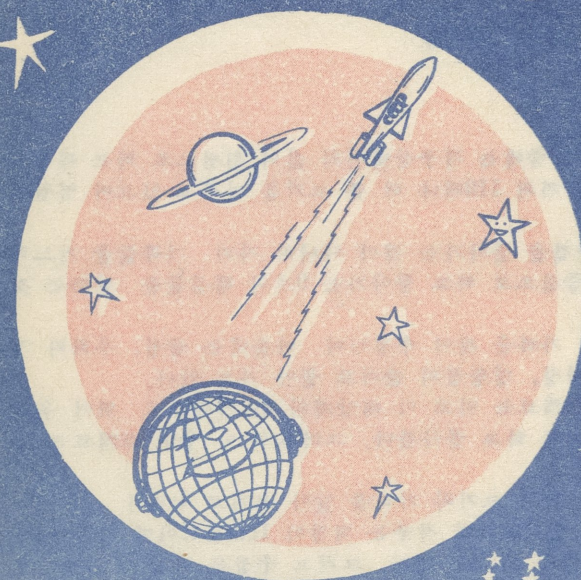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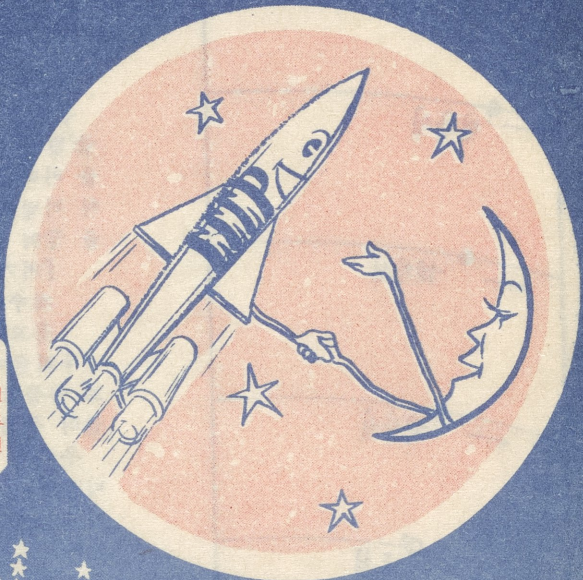
수성은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언제나 한쪽만을 태양쪽에 돌리고 있다.

금성에는 우리 지구의 대기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 대기가 둘러 싸여 있으며 이것이 광선을 가리우기 때문에 금성의 《땅》은 알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지구의 이웃으로 있는 화성에 대해서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많다. 화성에는 지구의 대기와 비슷하나 매우 희박한 대기가 있고 계절의 변화도 있으며 물도 있다. 화성에 어떤 생물이 사는가는 앞으로 우주 로케트를 타고 가서 직접 알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머지 않은 앞날에 위대한 쏘련의 과학이 열어 준 우주의 세계로 강력한 로케트를 타고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달 세계는 물론 수성, 화성, 금성…들에도 마음대로 찾아가 볼수 있게 될것이다.

우리는 다같이 위대한 쏘베트 과학이 이루워 놓은 빛나는 성과를 축하 하자!

(조 순형)

쏘베트 과학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합니다!

로케트…《나는 우주 로케트! 나는 우주 로케트! 지구는 들립니까! 나는 지금 초속 11.6km 로 달나라를 향해 계속 날고 있습니다.
우주는 고요합니다. 우주의 비밀에 대한 나의 무전을 받으십시요》

달…《지구의 첫 손님인 당신을 환영합니다.》
로케트…《친애하는 달이여! 당신을 만나게 되여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앞으로 지구의 손님들은 련달아 당신을 찾아올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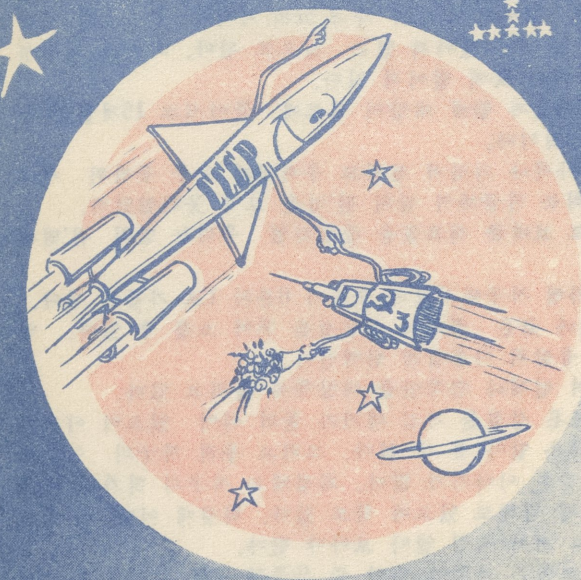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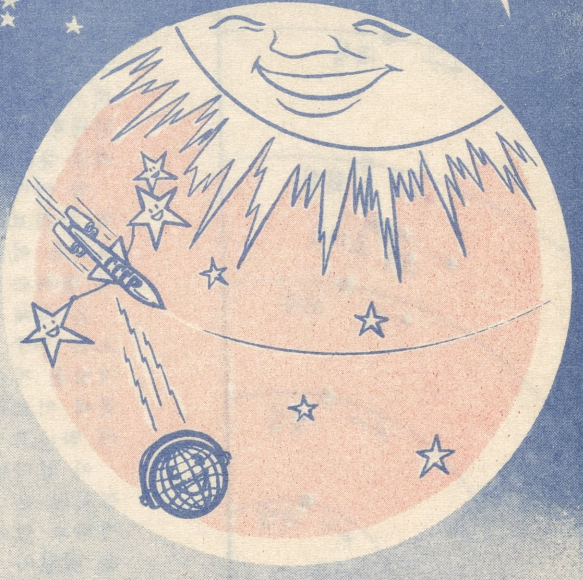
쏘련의 우주 로케트 만세!

제 3 인공 위성…《우주 로케트 동무! 첫 달나라 려행자인 당신을 축하합니다…》
로케트…《제 3 인공 위성 동무! 나의 려행은 당신들이 이미 우주의 길을 열어준 때문이요!》

로케트…《행성들 안녕하십니까? 지구의 첫 인사를 드립니다!》
행성들…《지구가 보낸 위대한 손님인 로케트 동무! 자…오늘부터 우리는 태양을 도는 형제행성이요!》

그림 김 영환

소설

꼬마 정찰병

김 규 엽

김 일성 장군의 명령을 받고 얼두강에 있는 일본 군대와 위만 병력을 정찰하고 밀영지로 돌아 가는 윤 성조 아저씨와 꼬마 용철이는 몹시 허기가졌다. 그들은 벌써 사흘이나 굶고 있었다. 걸을 때마다 깊은 눈에 푹푹 빠지는 발'길을 뽑아 옮겨 디디기란 참으로 힘들었다. 마치 몇십키로나 되는 무거운 쇠'덩이가 발'바닥에 눌려 붙은 것만 같았다. 눈 앞이 아찔해지며 다리가 부둘부둘 떨렸다.

그러나 용철이는 자기보다도 두끼나 더 굶었지만 보천보에서 원쑤들을 까부시던 용감한 이야기를 들려 주며 씩씩히 앞 서 걸어 가는 윤 성조 아저씨에게서 힘을 얻어 배고픔을 꾹 참고 허리까지 빠지는 눈'길을 근기 있게 걸어 나갔다.

윤 성조 아저씨는 자주 용철이의 허기진 얼굴을 돌아 보고는 더욱 신이 나게 이야기를 계속해 주었다.

밀림 속 산비탈에 왜놈들이 나무를 베여 장사하느라고 지었던 목재소 사무실 한채가 눈에 띄였다.

윤 성조 아저씨는 무슨 생각이 나서인지 일부러 발'길을 돌려 목재소 귀틀'집을 찾아 들었다. 방은 오래 쓰지 않아서 퀴퀴한 나무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용철이는 윤 성조 아저씨에게 왜 곧바로 가지 않고 빈집에 들리느냐고 캐물었으나 성조 아저씨는 빙그레 웃을뿐 대답이 없었다.

용철이는 나무 토막 우에 걸터 앉아 성조 아저씨의 동작만을 살펴 보고 있었다.

윤 성조 아저씨는 마른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놓고 돌을 삼면에 세운 다음 눈을 담은 알미늄 고뿌를 그 우에 걸었다. 그리고는 불을 때기 시작했다. 허기진 용철이에게 물을 끓여 먹이고 가자는 것이였다. 불을 쪼이면서 용철이는 성조 아저씨의 고마운 마음씨를 알아채자 눈물이 핑 돌았다.

알미늄 고뿌에 담긴 눈이 녹을 때마다 성조 아저씨는 자꾸 눈을 집어 넣어 이제는 고뿌에 물이 가뜩 찼다. 이윽고 고뿌 바닥

에서는 거품이 하나 둘 또르르 올라 오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켜 보고 앉아 있는 용철이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물 끓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였다. 용철이는 윤 성조 아저씨가 끓여 준 더운 물을 사양하다 못해 받아서 후후 불어가며 몇 목음 마시였다. 온 몸이 금시 후더워지며 기운이 솟아 올랐다.

윤 성조 아저씨는 옆에서 짜창 띠를 어깨에 걸치고 떠날 차비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하는 용철이를 대견하게 웃으며 내려다 보고 있었다.

윤 성조 아저씨와 용철이가 막 귀틀'집을 나와서 산마루로 올라 섰을 때였다. 느닷없이 왜놈 《토벌대》 수십명이 산중턱에서 산마루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원쑤들은 윤 성조 아저씨와 용철이를 보자 아우성을 치며 총을 쏘아대면서 산마루를 향해 기여 올라 오기 시작했다.

윤 성조 아저씨는 날쌔게 이깔나무 밑둥에 붙어 서서 사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용철이의 어깨를 잡아 채며 말했다.

《용철 동무! 자 이걸 가지구 빨리 이 골짜기를 타 내려 가오. 어떤 일이 있드라도 래일 아침 일곱시 안으로 장군님께 이걸 꼭 전해 드려야 하오. 이제 30리 남았으니 넉넉할거요. 어서 가오》.

용철이는 정찰 보고서를 윤 성조 아저씨에게서 받으면서 대꾸했다.

《아저씨 지금 이 뒤로 해서 같이 빠져 나갑시다. 빨리요》.

그러나 윤 성조 아저씨는 여니때 볼 수 없는 엄한 얼굴로 용철이를 쳐다보며 명령했다.

《둘이 빠져 나가다간 우리 두사람이 다 장군님이 주신 전투 임무를 해낼 수 없소. 내가 여기서 원쑤들을 맡아 싸울테니 어서 떠나오…》.

《아저씨 내가 여기서 혼자 남아 싸울테니 아저씨가 빠져 나가세요. 네?》.

용철이는 안타깝게 간청했다.

《명령이요. 어서 떠나가오…》.

아저씨는 사격 준비를 하며 엄하게 말할뿐이였다.

산 중턱이 활'등처럼 휘여진 곳에서 원쑤들은 벌써 산 허리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원쑤들의 미친듯 소리치는 고함소리와 총소리가 천년 묵은 밀림 속을 요란스럽게 울리고 있었다. 위험한 고비가 점점 닥쳐 왔다.

성조 아저씨는 이깔나무에 기대여 서서 앞장 서 올라 오고 있는 원쑤의 한놈한놈을 쏘아 눕히고 있었다.

한참 동안 사격을 하고 난 성조 아저씨는 허리를 펴고 적정을 쭉 휘돌아 보더니 용철이에게 또다시 말했다.

《동무는 장군님의 전사가 아니요…어째서 장군님이 주신 전투 임무를 수행하려구 하지 않소?! 어서 가오. 저 골짜기로 미끄럼질해서 뛰여 가오. 내가 그 쪽으로 원쑤들이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할테니 어서!》.

어째서 장군님이 주신 전투 임무를 수행하려구 하지 않느냐는 말에 용철이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

지금은 성조 아저씨와 내가 사는가 죽는가가 문제되지 않는다. 장군님께서 받은 전투 임무를 훌륭히 해내는 것이 중요

하지 않는가, 그렇지만 원쑤들의 한복판에 성조 아저씨 만을 혼자 싸우라고 남겨 두고 어떻게 나 혼자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용철이는 성조 아저씨가 자기는 희생될망정 장군께서 받은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그 훌륭한 정신을 거역해서는 안된다고 다시금 다짐하였다. 그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으로 성조 아저씨를 쳐다 보며 경례를 부쳤다.

《아저씨! ……》

말문이 콱 막혀서 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원쑤들은 더욱 가까이 달려 들고 있었다.

성조 아저씨가 뒤로 손을 내뻗치며 용철이의 출발을 재촉했다. 그리고는 바른쪽 골짜기와는 정반대되는 왼 쪽 산마루를 향해 내달아 가며 원쑤들을 향해 수류탄을 힘껏 내던졌다.

《꽝!》

요란한 폭발 소리와 함께 원쑤들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그 자리에 썩은나무 쓰러지듯 나 딩굴며 뻗으러졌다. 살아 남은 원쑤들은 성조 아저씨 쪽으로 와 하고 몰려 가기 시작했다.

이 틈을 타서 용철이는 골짜기를 향해 깜쪽같이 눈속으로 기여 들어갔다. 그리고는 미리 눈여겨 보아 둔 낭떠러지 바위밑 퍽 패인 곳으로 기여 나갔다. 산허리를 에워싸고 올라 오며 쏘아대는 원쑤들의 총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려 왔다. 용철이는 숨을 죽이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면서 안주머니 속에 깊이 간사한 정찰 보고서를 손으로 꼭 누르고 있었다.

원쑤들의 꽥꽥 소리치는 말소리와 함께 눈더미가 우수수 용철이가 엎던 눈 우로 내려 쏟아졌다. 원쑤들이 바로 용철이의 옆을 지나 낭떠어지를 기여 오르며 밀쳐 낸 것이다.

원쑤들이 산 우로 올라 가자 용철이는 눈 더미를 헤치고 고개를 쑥 내밀었다. 산마루로 오르는 원쑤들의 대렬 한가운데서 《꽝!》하고 요란스러운 폭음이 또 다시 들려 왔다.

용철이는 날쌔게 골짜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렸다. 등결에 걸리고 바위 모서리에 찍히면서도 그는 아픈 줄을 모르고 사뭇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골짜기를 빠져 건너편 산을 올라 갈 때 멀리서

《조선 독립 만세!》

하고 웨치는 성조 아저씨의 고함 소리가 원쑤들의 어지러운 총소리에 섞여 메아리쳐 왔다. 그 소리를 들은 용철이는 몇 번이고 소리 난 쪽을 뒤 돌아 건너 보며 눈물을 씻었다.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어두워지면서 추위는 더욱 심해졌다. 더군다나 눈보라까지 윙윙거리며 휘몰아쳐서 눈 덮인 밀림 속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춥고 배고픈데다 어디선가 곰의 울부짖는 소리까지 가까이에서 들려 왔다.

그러나 용철이는 장군님께 드릴 정찰보고서를 한 손으로 꼭 누르고 사뭇 어두운 밀림 속을 헤치고 걸어 나갔다.

그런데 령을 내려 가던 용철이는 느닷없이 한 쪽 발을 뒤뚱하더니 온 몸이 허공 떠서 나딩굴며 떨어졌다.

한참만에 정신이 들었을 때는 왼쪽 앞정갱이가 욱씬거리고 참을 수 없이 아파왔다.

그는 이'발을 앙당물고 쑤시고 아픈 다리를 세워 다시 걸어 나가려고 일어 섰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쭉 삐여져 나온 바위 끝을 잘못 디디여 굴러 떨어지면서 정갱이 뼈를 부러뜨린 것이다.

(이대로 여기서 쓰러진 채 밀영지에서 기다리고 계실 장군님께로 가지 못한다면…)

이런 무서운 생각이 퍼뜩 용철이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두, 설사 죽는 일이 있다 해두 꼭 가야 해. 기여서라두 가야지 장군님의 아동 혁명 단원이 아닌가!)

그는 쑤시고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계속 눈보라 속을 뚫고 눈'길을 헤치면서 기여 나갔다.

노상 다니던 산'발들이지만 어둡고 눈덮인 산'발, 그것도 기여서 밀림 사이를 뚫고 나가니 방향은 자꾸만 어긋났다. 그럴 때마다 그는 몇번씩 주저 앉아서는 눈가늠을 해보군 기여 갔다.

배는 고프고 추위는 뼈'속에 스며드는데다 다리는 끊어질듯 아팠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아픔을 참고 견디며 기여 나가던 용철이는 마침내 정신을 잃고 눈 우에 쓰러지고 말았다.

자꾸만 졸리기 시작했다. 잠만 들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얼어 죽고 말것이다.

어느덧 사납던 눈보라도 그치고 밀림 사이로는 별'빛이 하나 둘 깜빡이는게 눈 우에 쓰러진 용철이의 눈에 띄였다.

그는 별'빛을 보자 문뜩 지금은 아무도 없는 집 생각이 떠 올랐다.

김 일성 장군 부대에 량식을 대 주었대서 아버지가 왜놈들에게 총살 당한 3년 전의 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복쑤를 위해 부대의 군복을 지어 보내던 어머니가 어린 동생을 업은채 원쑤들에게 끌려가서 학살 당한 2년 전의 일, 어머니가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집 마당에 누워서 울며 밤새 쳐다만 보던 그 여름 밤의 별'빛……

그 별'빛을 보며 어버이의 원쑤를 갚고야 말리라고 결심을 다지며 산으로 뛰여 가던 일들이 용철이의 눈 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원쑤를… 갚아라… 원쑤를…》

아버지가 원쑤들의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웨쳤다는 유언이 쟁쟁히 귀'전에 울려왔다. 그러자 그는 주먹을 틀어 쥐고 머리를 치껴 들었다.

《괴롭고 힘드는 일을 용감히 이겨내는 것이 아동 혁명 단원의 자랑이요. 그래야만 원쑤를 쳐부시고 우리 나라를 원쑤들의 손아귀에서 찾아 낼 수 있소…》.

장군님을 찾아 산에 들어 갔을 때 웃으시며 말씀해 주시던 장군님의 인자한 얼굴과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그렇다! 나는 아동 혁명 단원이 아닌가! 이까짓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서 어떻게 아버지의 복쑤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 나라를 찾을 수 있겠는가! 가자!)

용철이는 용기를 내여 또다시 기여 나가기 시작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찬 바람이 밀림을 윙윙 울리며 불어왔다.

눈을 짚고 기여 가는 손은 끊어지듯 애리고 쑤시고 부러진 정갱이는 이제는 아프다 못해 남의 살처럼 뻣뻣해져서 그는 몇걸음 기여 가서는 엎어지고 일어 나서는 또 기여가다 엎어지군했다.

그는 몇번이고 이젠 더 못가겠다고 마음 한 구석 소리치는 나약한 자신을 나무래며 용기를 내였다. 그러나 정말 몇 걸음 기여 가서는 그만 쓰러지고 마는 그였다. 그는 곱아서 뻣뻣해진 손으로 가슴 속에 간직한 정찰 보고서를 조용히 만져보며 생각했다.

(어떤 일이 있드라도 꼭 래일 아침 일곱시 안으로 장군님께 전해 드려야 한다고 윤 성조 아저씨가 말하지 않았는가, 윤 성조 아저씨는 장군께서 받은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받치지 않았는가. 가자! 가다가 죽는한이 있드라도 기여 가자, 아니 죽어서는 안돼 꼭이 정찰 보고서를 장군님께 들여야 해!)

용철이는 떨리는 이'발을 앙당물고 사뭇 기여 나갔다.

기나긴 겨울 밤도 지새여 가는지 동녘 하늘이 희끄므레 동터 오기 시작했다. 그처럼 괴롭고 괴롭던 몸과 마음도 동터 오르는 동녘 하늘을 쳐다보니 한결 따스해지고 힘이 솟아 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벌써 수백 수천의 대원 아저씨들이 무장을 갖추고 원쑤를 치러 가기 위해서 장군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광경을 생각하니 마음은 한없이 다급해졌다. 그는 힘을 다 해서 그저 기여 나갈 뿐이였다.

별안간 어디선가

《누구야— 섯!》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용철이는 깜짝 놀라 얼어서 뻣뻣하게 굳은 몸을 얼른 나무 뒤에 붙이고 숨을 죽였다. 그리고 허리에 찬 마지막 수류탄 하나를 곱은 손으로 빼여 들었다.

나무 밀둥 사이로 내다보니 군복을 입

은 두 사나이가 이쪽 저쪽에서 총을 겨누고 나무 사이로 살금살금 자기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용철이는 이제는 밀영지가 멀지 않은 이곳까지 와서 전투 임무를 다해 내지 못한채 원쑤에게 죽는가 생각하니 창자가 끊어지는듯 아팠다. 그는 20메터 쯤 다가 온 두 사나이를 향해 내던지려고 수류탄을 꺼내들었다. 바로 그 때였다.

《용철이!》

다가 오던 한 사나이가 웨치는 것이였다.

깜짝 놀라 옆을 돌아 보니 바로 용철이네 정찰 소대장 아저씨였다.

윤 성조 아저씨와 용철이를 걱정하여 소대장 아저씨와 또 한 아저씨가 찾아 나온 것이였다.

소대장 아저씨의 얼굴을 본 용철이는 그만 눈이 아찔해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용철이는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 보니 장군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빙그레 웃고 계셨다. 용철이는 장군님을 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채 경례를 붙이고는 윤 성조 아저씨가 준 정찰 보고서를 꺼내려 안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훌륭한 일을 했어! 어서 누워 잘 치료하오. 이젠 훌륭한 정찰병이 됐소》.

장군께서 용철이를 자리에 눕히며 칭찬하시는 것이였다. 장군께서는 큰 귤 하나를 용철이에게 주시며 말을 이으셨다.

《동무가 가져 온 정찰 보고에 근거해서 우린 어제 열두강을 쳤지, 또 이겼소. 이건 거기서 얻은 전리품이요》.

귤을 받아 들며 장군을 올려다 보고 있는 용철이의 눈에는 이슬이 반짝이였다. 그의 가슴은 자꾸만 뜨겁게 소용돌이치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벅차 올랐다.

장군이 인자하게 웃으며 내려다 보시는 눈언저리에서 이슬이 반짝이는 것을 본 용철이는 그만 장군의 따스한 넓은 품에 얼굴을 묻고 감격에 겨워 흐느끼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 대표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승리의 새해—1959년을 맞이하여 김 일성 수상님을 친히 모시고 열린 자랑찬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에 공화국 전체 소년단원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소년단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머나 먼 나라들에서 오신 귀중한 손님들도 참석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귀중한 손님 여러분에게 조선 소년단원들의 열렬한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고국으로 돌아가시거던 우리의 친근한 삐오네르들에게도 우리의 인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자 여러분!

오늘 이 대회에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협동화를 빛나게 완수한 위대하고도 자랑찬 승리를 총화하고 앞으로 계속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김 일성 수상님이 령도하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영명한 지도 밑에 벌써 농촌의 협동화 운동을 빛나게 완성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은 옛날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주의 락원으로 변하였습니다.

동이 튼다
찬란한 희망의 새 아침이
행복과 환희로 아롱진
붉게 물든 지평선 넘어로
사회주의 해'발이 솟아 오른다

휘황한 빛'발은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오곡 백과 금물'결은
산과 들에 파도쳐 흐르고
풀잔디 아담한 언덕마다엔
양떼와 소무리가
행복을 노래하고
과수나무 울창한 마을마다엔
희망의 웃음 꽃이 피여 나고….

깊고 깊은 두메 산'골
하늘 아래 첫 동네에도
사회주의 해'발은 찬란히 비쳐
대대로 물려오던
오막살이 집터엔
붉은 기와 흰 벽에
유리 창문 오리오리 하고
밤이면 휘황한 전등'불 아래
평양 소식 기쁜 소식

희망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아이들의 글 소리 노래 소리는
행복의 노래 되여 울려 퍼진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고
래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빛나는 공산주의를 향해
인민들은 나아간다
천리마의 발'구름 소리와 함께.

누가 행복으로 가는 길
공산주의로 가는 길 가르쳤더냐
누가 빛나는 앞'길을
인민 앞에 활짝 열어 주었더냐.

우리는 노래한다
맑스—레닌의 기'발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로동당을
김 일성 수상님을!

사랑하는 당이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큰 땀 흘려 싸우는 당이여
영광 영광 영광이 있으라!

존경하는 대표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이 크면 클 수록 억압 받고 천대 받고 살아 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제 때 일을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행과 슬픔이 아버지 어머니들을 괴롭혔던가!

그러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새 행복 새 기쁨이 찾아 들 때마다 지주 자본가놈들의 시달림 속에서 살아 온 일제 때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 주시군 합니다.

이것은 옛말 아닌 옛말
아버지 어머니들의 옛' 이야기라네
불행과 슬픔을 낳던
그 옛 시절
세상은 고통의 어둠으로 덮혔어라

자본가는 로동자를 돈으로 얽고
지주는 농민들을 땅으로 얽었다네
하여 돈 없는 로동자는 일자리를 잃었고
땅 없는 농민은 살 곳을 잃었다네

그 어디로 떠나는 사람들인가
괘나리 보'짐에
쪽바가지 차고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가
흘러간다 흘러간다 구름과도 같이

소작살이 가난에 쫓기운 아버지들이
지주'집 머슴살이에 시달린 어머니들이
정든 땅
정든 고향 다 버리고
살'길을 찾아 떠나 갔다네
북간도 만주로…
비'바람 눈보라는
앞'길을 막고
원한과 슬픔은
발자국 마다 고이는데
젖 마른 엄마 품의 갓난 아기는
배고파 울다 울다 잠이 들고,

떼여지지 않는 발'길은
천근 만근으로 무거운데
아버지 어머니 옷자락에 끌려가는
철부지 아이들은
배고프고 발 아파 울먹 거리고,

아버지는 피 눈물로
아이들을 바라 보았다네
어머니는 돌아선채
옷고름만 적시였다네
어린것들 못 먹이고
어린것들 못 입히고
고난의 길을 가야하는
가슴 터지는 아픈 마음으로—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들은
슬퍼만 하지 않았다네
그들은 생각했다네
래일의 행복을,
래일의 기쁨을,

아버지는 힘있게 말하였네
어머니는 희망차게 속삭였네
울먹이는 아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때는 오리라 반드시
내 나라 찾아 잘 살 그날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애타던 소원은 이루워 졌습니다.

나라 없는 설음과 일제와 그의 앞잡이 지주 자본가 놈들에게 억압 받고 살아 오던 조선 인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님은 손에 무기를 잡고 혁명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억압 받고 착취 받던 조선 인민을 해방하고 오늘의 빛나는 사회주의 조국을 찾기 위해 슬기로운 김 일성 수상님의 유격부대들은 만주'벌과 밀림에서 감옥과 지하에서 오랜 세월, 악독한 일제 원쑤들을 반대하여 피흘려 싸우셨습니다.

불'길이 타 오른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

거센 혁명의 불'길이

고통에 허덕여 시달리는
로동자 농민의 해방을 위해
쓰라린 가슴 쥐고 헤매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
혁명의 불'길은
하늘을 찌러 활활 타 오른다.

눈보라 지동치는 장백을 주름 잡아
혁명의 대오는 나아갔다.
모진 추위와 굶주림이 닥쳐 와도
고난과 난관이 부닥쳐 와도
혁명의 대오는 오직 앞으로
조국의 광복 위한
싸움의 길로 나아 갔다.

고난의 행군은 그 몇 번이더냐
원쑤를 무찌른 판가리 싸움은 그 몇 번이더냐
혁명을 위해 쓸어진 투사들 그 얼마더냐
강철의 한 뜻으로 뭉쳐진
혁명의 대오는 오직 앞으로
인민의 기 붉은 기'발 휘날려 휘날려
승리의 길로 나아갔다.

싸움의 나날은 고달펐어도
혁명의 기세는
투사들의 가슴을 불태웠거니
산림 속에 눈 깔고 누어 잘 때나
감옥의 찬 바닥에 쓸어진 때나
마음은 언제나
솟구치는 끓는 피로 뜨거웠고
공산주의 승리를 믿는 마음은
언제나 반석으로 굳건하였더라
장하여라 슬기로워라
우리의 혁명 투사들이여!

영광을 드립니다
인민의 영광을
오늘의 큰 행복을 안겨 준
빛나는 조국의 앞'길을 열어준
경애하는 우리의 수상님에게
그의 슬기로운 혁명 투사들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배우렵니다.
우리는 따르렵니다.
당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에 충실한 혁명 투사들의 빛나는 혁명 정신을!
어떠한 어려움과 고달픔도 모두 박차고 오직 공산주의 승리를 위해 원쑤를 쳐 나아가는 불굴의 투지를,
원쑤를 미워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할 줄 아는 참된 혁명 투사들의 품성을, 온 세계 로동 계급과 굳게 손목 잡고 나아가는 국제주의 정신을,
존경하는 대표자 여러분!

김 일성 수상님의 혁명 전통을 물려 받은 우리들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수상님의 어린 전사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혁명을 위해 몸바치는 훌륭한 로동 계급의 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훌륭한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는 참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2년전부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 로동당원들과 민청원들의 뒤를 따라 우리들도 나라 일을 돕자고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활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지식이 얼마나 값있고 훌륭한 것인가를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벌써 숫한 꼬마 공장, 꼬마 발전소, 꼬마 농장들을 만들어 많은 유익한 물건들과 전기와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5천만 마리의 로끼와 5천 톤의 피마잠 3만 9천 톤의 피마주와 해바라기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들은 적은 힘도 모이고 모이면 못할 일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작년에만도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된 《소년호 렬차》와 《소년호 기중기》들을 사회주의 건설자들에게 보내여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대표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대회에 드릴 적은 선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화국 전체 소년단원들은 오늘의 이 감격스러운 대회를 앞두고 조선 소년단 명칭 농기계 임경소의 뜨락또르, 자동차 등 일체 설비를 선물로 보낼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적은 선물이지만 공화국전체 소년단원들의 감사와 정성의 선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자 여러분!

조선 로동당이 앞길을 밝혀 주는 사회주의 조국에서 사는 우리에겐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워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길엔 오직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행복과 희망이 뻗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랑한다네
공산주의 어린 투사들임을
우리에겐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에겐 마음 다진 모든 것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없다네

많고 많은 희망 중에도

가장 귀중한 희망
그것은 영예로운 민청원으로
슬기로운 조선 로동당원으로
영광스런 대렬에 들어 서는것

우리는 싸워 이기리라
억압 받고 착취 받는
온 세상 인민의 해방을 위해
더는 다시 이 세상에
제국주의 승냥이가 살아 있지 못하게

우리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높은 기술 새 기술 배워
단추 하나 눌으면
열 백대 기계들이 저절로 돌아
물건들을 산더미처럼 만드는
새 공장의 로동자가 되렵니다.

우리들이 커서 용해공이 되면
한 시간에 쇠'물을 콸콸 녹게하는
새 발명을 자꾸 해서
우리 나라를 강철로 덮히게 하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농민들이 더 많은 일을
헐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많고 많은 뜨락또르, 자동차, 꼼바인들을 만들어
우리 나라 농촌에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우리는 공산주의 농촌의 떳떳한 주인
새 과학, 새 기술 배우고 배워
십승책이 자연을 무릎 꿇게하고
우리의 뜻대로 길드리렵니다.

우리들이 농촌의 기술자되면
우리 땅은 기름진 황금의 땅 되여
한 정보에 2천—3천 톤의 알곡을
강물처럼 흘러 내리게 하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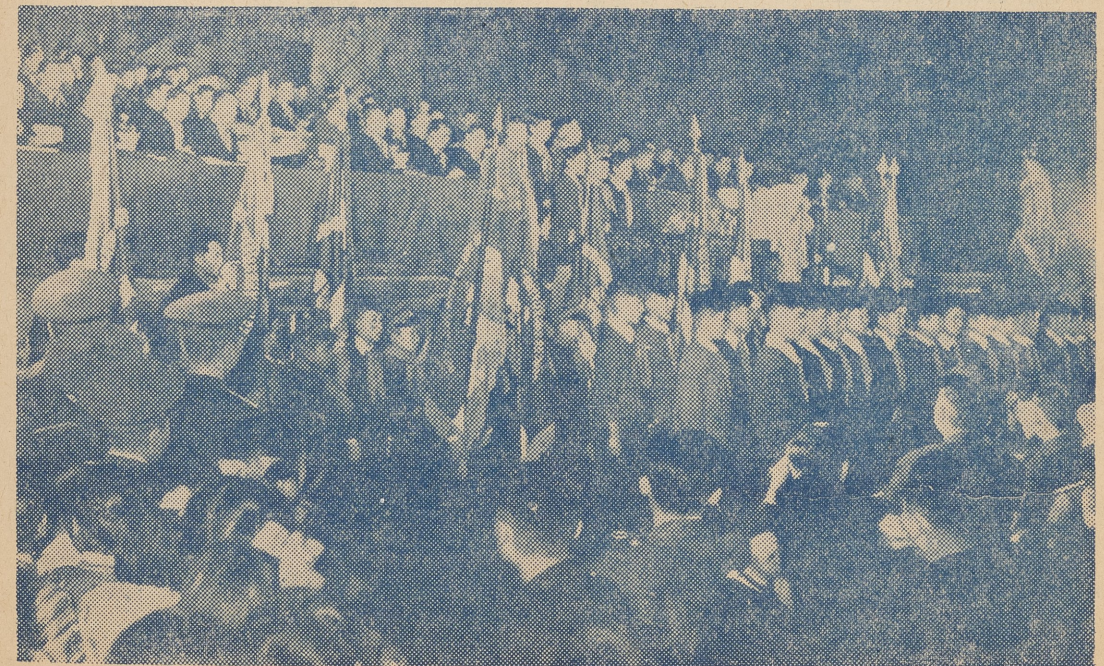
우리들이 농촌의 축산 일'군 되면
우유와 빠터는 바다처럼 출렁이고
고기와 계란은 산더미로 봉우리를 이루는
부유한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렵니다.

우리들이 농촌의 원예가가 되면
세계에 없는 과수 나무 자래워
한 나무에 열두가지 과일 열리는
크고도 맛나는 새 과실로
우리 땅을 덮게 하렵니다.

무엇이건 원하라!
로동당이 앞길 밝히는 나라
우리들의 앞날은 활짝 열렸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빛나고도 황홀합니다. 우리가 커서 어른이 되면 우리들은 로동당원들과 민청원들의 대를 이여 땅우의 락원 공산주의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동자 농민들이 땀 흘려 이루어 놓은 모든 귀중한 성과를 우리들이 다시 더 크게 아름답게 건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표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처럼 행복하면 할 수록 우리는 불행한 남반부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제 원쑤놈들과 리 승만 역도놈들 때문에 헐

벗고 굶주리고 있는 불행한 남반부 아이들을 생각할 때 마다 우리들의 가슴은 미여지듯 아파납니다.

눈보라 천지를 휘 덮는
밤 거리를 헤매이는 남쪽 땅 아이들아
너희들은 어디로 가느냐
눈보라 치는 어두운 밤에
다 해진 여름 옷에
주린배 움켜 쥐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느냐.

집은 어디이냐
부모들은 누구이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제집을 찾을 대신
남의 집 처마 밑과
이름 모를 다리 밑을 찾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불 대신 거죽을 쓰고
얼음장 맨 땅에 눕느냐

밤 늦도록 떠들고 고와 대던
노름집 파란색 노란색 불'빛도
꺼진지 여느듯 이슥한데
홀로 가난한 사람만이 남았구나
눈보라의 장막 속에 남았구나

살을 에이는 눈보라 속에
외로이 떨고 있는 움막집들엔
젖 마른지 오랜 엄마 품을
애타게 쥐여 뜯으며 울고 있는
목 갈긴 아이의 저 울음 소리

갈곳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버림 받은 남쪽 땅 아이들아
우리는 안타깝구나
우리의 행복을
나누지 못하는 설움으로…

우리에겐 아담하고 따뜻한
높은 집 새 아빠트들이 즐비하고
우리에겐 먹을 것 입을 것이
태산 같이 쌓였는데
우리의 손'길 보낼 길 없구나!

아이들아!
그리운 남쪽 땅 아이들아
너희들의 언 몸
우리 품으로 녹여 주고 싶구나!
굶주린 너희들을
배 불리 먹이고 싶구나!

그러나
이것은 안타까운 생각일 뿐
그처럼 만나고 싶어도
만날 길 없고
모여 살고 싶어도
모일 길 없는 이 불행!

그렇다!
이는 미국 원쑤놈들 때문이다!
리 승만 역도 놈들 때문이다.
미국놈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 가라!

전쟁의 어둠을 펴고
인민들을 불행과 슬픔 속에 몰아 넣는
제국주의 무리들은
온 세상에서 반드시 멸망하고
위대한 쏘련 인민들이 이룩한
우주 로케트로
달 나라 려행을 떠나는
광명과 행복이 나래 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새 시대는
온 세계 인민 앞에 활짝 열리리라!

이 땅에도 그날은 오리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에
붉은 기'발 공산주의 기'발이
바다처럼 파도칠 그날은

그 때는
삼천리 강산마다엔
오곡이 무르익어 파도치고
공장들은 수림처럼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은 다시는 불행을 모르는
이르는 곳 가는 곳이
영원한 행복의 락원되리라

아이들은 떠나 가리라
즐거운 조국의 려행을
부산의 아이들은 보천보 전적지로!
신의주 아이들은
경주의 명승지로
아름다운 조국의 품을
아이들은 행복과 희망으로 노래하리라!

김 일성 수상님이 령도하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가 가리키는 길로
3천만 조선 인민은 나아가리라
하늘 땅을 울리며 달려 나아가는
슬기로운 로동 계급과 함께
농민들도,
인테리들도,
그리고 래일을 이어 받을 소년단원들도,
모두다 앞으로
공산주의 붉은 기'발을 휘날려 휘날려
찬란한 지평선을 향해 달려 나아가리라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북경과 하노이에서

봉 필 윤

북경에서

1958년 11월 21일,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하는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은 민주 수도 평양을 출발하여 이튿날 오전 11시 형제의 나라인 중국의 수도 북경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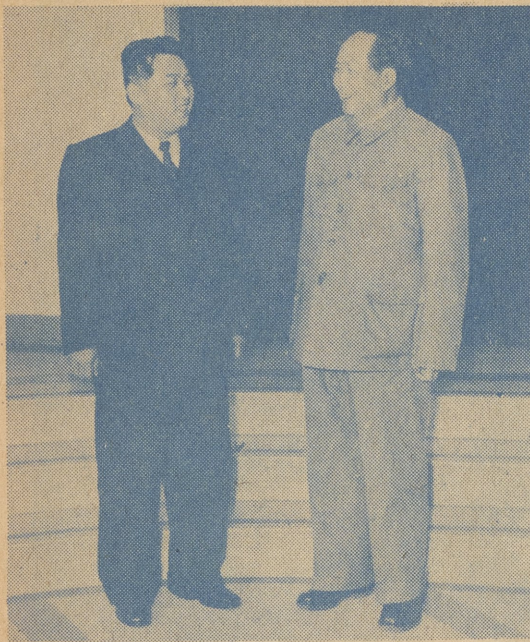
압록강을 건너 첫 중국의 국경 도시인 안동역에서부터 밤에 지나간 심양역과 그리고 천진역에서도 여기를 지나는 대표단은 홈에 가득 들어찬 수천명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북경역 홈과 숙소까지의 거리에서는 실로 30여만의 군중들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렬차가 채 멎기도 전에 군중들은 기쁨에 찬 얼굴로 환성을 올렸으며 《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소리 높이 불렀다. 중국에 첫 걸음을 내디던 안동에서부터 시작된 《김 일성 장군의 노래》는 대표단이 이르는곳—북경, 무한, 광주, 항주, 상해를 비롯한 전 중국 땅에서 울려 나왔으며 대표단이 자기 사업을 원만히 끝내고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 돌아 올때까지도 끄치지 않았다.

김 일성 수상님이 렬차에서 내리시자 희망의 꽃봉오리인 소녀들이 달려 나와 김 일성 원수님에게와 전체 대표단원들에게 정성들여 만든 꽃묶음을 안기였다. 수천명의 시민들이 흔드는 꽃다발로 홈에는 때아닌 꽃이 만발하였다. 붉고 푸른 꽃보라와 5색 테프가 련거퍼 김 일성 수상님과 대표단원들에게 뿌려졌다.

김 일성 수상께서 걸어 나가는 길우는 마치 금잔디를 깔아 놓은 듯 꽃보라로 묻치였다. 북경 역에서 숙소까지의 온 거리도 바로 이러하였다.

조선 인민의 민족적 영웅이신 김 일성 원수!

일본놈들이 꿈'결에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항일 빨찌산의 령장!

김 일성 수상을 맞이하는 모 택동 주석

세계에서 제일 힘세다고 뽐내던 미제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한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오늘은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며 공산주의를 향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는 조선 인민을 령도하시는 김 일성 수상님!

중국 형제들도 사회주의 한길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룩한 성과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한다. 때문에 김 일성 수상께서 방문한 중국의 거리와 도시, 공장과 농촌에서 형제이며 전우의 나라인 6억 5천만 중국 인민은 이렇게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을 열광적으로,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 북경에서 만난 중국 인민 지원군 제대군인 아저씨들

대표단이 도착한 이튿날인 11월 23일 오후 북경에서는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군중 대회가 열렸다.

나는 지원군으로 조선 전쟁에 참가하여 빛나는 위훈을 세운 전투 영웅들인 왕 호원, 왕 점산, 륙 창영, 애민 모범 군인인 황 치부 아저씨들과 만났다. 그중 황 치부 아저씨는 산 라 성교로서 강원도 이천군 림진강반에서 조선의 소년 리 청원 동무를 목숨 걸고 물속에서 구해낸 분이다.

아저씨들은 김 일성 수상님을 만날날을 꼭 명절 날을 기다리는 어린이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였다.

바로 그 전날 저녁 주 은래 총리가 베푼 연회에서 김 일성 수상과 함께 축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눈동자가 감격에 번뜩였던 장면이 나의 머리에 떠올랐다.

이러한 심정이기에 황 치부 아저씨가 강원도 이천에서 수상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지금도 자기 중대 구락부에 걸어 놓고 《수상님 뵈고 싶을 때면 가본다》고 하는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황 치부 아저씨의 가슴에는 우리 나라 국기 훈장 제 1급이 빛나고 있었다. 《미제는 조선과 평화의 원쑤입니다. 만약 조선의 어머니가 우리를 부른다면 만약 조선의 어머니와 어린이들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생긴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 달려 가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면서 왕 점산 아저씨는 모두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김 일성 수상님을 비롯한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혁명을 피로써 도왔다. 오늘 중국 가는곳 마다에서 중국의 형제 누구나가 다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이야기를 감격과 흥분속에 하고 있으며 대대 손손 전설처럼 전하고 있다. 조선과 중국 인민은 그전도 그랬으며 지금도 역시 끊을 수 없는 형제간이다.

때문에 오늘 제대한 지원군 아저씨들의 이 말은 6억 5천만 중국 인민이 조선 인민에 대한 진정한 목소리인 것이다.

△ 황 량분 동무의 시

대표단이 중국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 광주 비행장에 도착했다. 여기는 아직 늦은 여름이다. 여름옷 차림도 가벼운 많은 소녀들의 맨 앞장에 선 광주시 제 2중학교 초급반 1학년생인 황 량분 동무가 기쁨이 가득찬 얼굴로 꽃묶음을 안고 수상님 앞에 달려 왔다. 소년단의 경례와 함께 꽃묶음을 김 일성 수상님에게 드리였다. 김 일성 수상님은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고 귀여운 소녀의 머리를 여러번 쓰다듬으셨다. 수상님에게 꽃을 드리고도 황 량분 동무는 수상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줄곧 뛰노는 새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였다.

얼마 후에야 나는 겨우 황 량분 동무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

《어째서 기뻐하는 가구요? 내 마음을 모를 겁니다. 나는 어제 밤을 새워가며 시를 지었습니다》고 분홍색 줄이간 산뜻한 짧은 치마를 바람에 날리며 동무는 말하였다.

전날 저녁 동무는 소년궁에서 광주시 《양성 만보》 신문사의 한 기자로부터 김 일성 수상께서 광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비로소 들었다.

《그래 동무는 무엇을 선물 하겠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도 황 동무의 가슴은 그저 뛰기만하였다.

(오래전부터 꼭 만나뵈고 싶었던 김 일성 아버지께서 오신다는데 그대로야 어떻게 마중 나간담……) 집으로 돌아 오면서 황 동무는 줄곧 생각에 잠겼다.

생각하는 마음은 쌓이고 쌓여 동무의 자그마한 가슴을 뒤흔들었다.

그는 흥분과 기쁨에 뒤엉킨 얼굴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친선의 정 길길이 흐르는 압록강을 건너
우리의 수 많은 구슬 같은 강을 건너
여기에 오신
김 일성 아버지,
우리들의 존경의 마음 하나로 엮어진
가장 아름다운 꽃을 모아 삼가 당신께
드리나이다.
………………………》

소박하고 진정이 흘러 넘치는 이러한 시구들을 중국땅 가는곳 마다에서 우리는 수없이 읽었다.

欢迎

以金日成首相为首的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代表团!

上海少年宫
小伙伴印刷厂
1958年12月3日

상해 소년들이 수상께 손수 찍어드린 인쇄물

공산주의 건설자로서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중국소년들에게 학업과
로동에서 더욱 큰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

1958년 12월 8일

김 일성

김 일성 수상께서 중국 소년들에게 주신 글

△ 상해시의 소년궁에서

12월 3일 오후 경치 좋기로 이름난 항주를 떠난 대표단 일행은 비행기로 한시간도 채 걸리지 못하여 상해에 도착하였다. 대표단은 이날 저녁 상해 소년궁을 참관하였다.

1953년 6.1절에 세운 이 소년궁에서는 지금 매일 평균 약 2천명의 아동들이 각종 과외 교양을 받는다. 여기에는 생산 실험, 문예, 체육 등 36개의 각종 써클과 3개의 꼬마 공장이 있으며 아동들을 위한 문화 휴식 시설이 있다.

정문에서 약 1천명의 소년단원들이 김 일성 수상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 일성 수상께서는 먼저 여러 나라 아동들로부터 보내온 선물 진렬실을 돌아 보셨다. 거기에는 평양 제 40중학교에서 보낸 색동 저고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 소년단원들이 친선의 정을 담아 만들어 보낸 선물들이 가득하였다.

음악 써클실에서 소년단원들은 우리말과 중국말로 《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합창하여 대표단을 반겨 맞았으며 미술 써클실에서 수상님은 상해시 홰해 중학교 공시위 학생의 청을 받아 그가 정성껏 그린 김 일성 수상의 초상화에 수표를 해주었다.

인쇄 써클실에서 소년들은 자기들이 손수 찍은 인쇄물을 수상님께 드리였다. 붉은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엽서만한 종

김 일성 수상을 맞이하는 호 지명 주석

이에는 이 소년궁의 정면도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을 환영한다!》

맨 아래'층 홀에서 소년궁 아동들의 환영 모임이 벌어졌다.

《우리는 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를줄 압니다. 우리는 김 일성 아버지께서 항일 무장 투쟁을 지도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 일성 아버지께서 우리 소년궁을 방문하신 오늘을 영원히 감격에 넘친 날로 기억할 것이며 더 높은 학습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중조 두나라 어린이들의 마음과 마음은 하나로 잇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친근한 동무—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인사를 전해주세요》방 국녀 동무의 환영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장내를 울리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물건을 김 일성 수상에게 선물하였다.

김 일성 수상께서 중국 소년 소녀들의 성과와 친선의 정을 조선 아동들에게 전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한결 같은 웨침이 몇번이고 장내를 뒤흔들었다. 소년 소녀들이 김 일성 수상님을 둘러싸고 붉은 넥타이를 매 주었으며 환성을 올리면서 하루'밤을 같이 지새워 줄 것을 바라는 듯 오래'동안 길을 틔워 주지 않았다.

하노이에서

11월 28일 대표단 일행은 월남의 수도 하노이에 도착하였다. 월남에 머물은 5일간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은 월남의 도시와 공장 농촌들 이르는 곳마다에서 열렬한 환대와 환영을 받았다. 비행장에서 숙소까지에는 약 3만명의 하노이 시민들이 줄지어 서서 김 일성 수상에게 환호를 보내고 꽃보라를 뿌리였으며 《김 일성 수상 만세!》를 웨치는 목소리는 전 시가에 끊임없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대표단이 숙소로 정하였던 주석부 현관에서 호 지명 주석은 김 일성 수상을 뜨거운 포옹으로 맞아 들였다.

이날 오후 시내 파정 광장에서는 7만여명의 시민이 모여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 대회를 열었다.

군중 대회에서 호 지명 주석께서는 조선 로동당의 지도하에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이 달성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훌륭한 성과를 찬양하시면서 조선 인민과 단결하며 경쟁할 것을 하노이 시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군중들이 이를 환영하여 환성을 올렸다. 호 지명 주석은 선참《단결은 힘이다》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전체 군중이 이에 따라 목청껏 이 노래를 불렀다. 하노이 시민들, 그리고 전체 월남 인민들은 자신의 단결된 힘과 조선 인민과의 단결을 이렇게 결의하였으며 공동의 원쑤 미 제국주의자들을 각각 자기 나라의 남쪽땅에서 내쫓고야 말 혁명적 기세에 충만되고 있었다.

11월 30일 대표단은 월남에서 가장 큰 공장의 하나인 남딩시 남딩 방직 공장을 참관하였다. 공장 로동자들은 끊임없이 《무남!》(만세라는 뜻)을 웨치면서 김 일성 원수님과 대표단원들을 환영하였다. 한 청년이 달려나와 김 일성 수상의 초상을 한쪽에 그린 편지를 김 일성 수상에게 드리였다.

김 일성 수상께서는 40세가 넘는 2명의 녀성 로력 영웅을 비롯한 많은 로동자들과 직접 이야기 하시였다.

로력 영웅인 직포공 원 시오 아주머니는《나는 공부를 못하여 오늘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오직 김 일성 수상님의 만수 무강을 축원할 뿐이다. 그리고 평양 방직 공장 로동자들과의 경쟁에서 다 같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도록 힘쓰는 것으로 오늘의 기쁨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날 저녁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은 하노이시 교외의 환라리에 들리였다.

입구에서 환라촌 인민 학교 학생들은 《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소리 높이 불렀다. 3학년 학생 수 란 동무가 먼저 달려나와 김 일성 원수에게 자기의 붉은 넥타이를 매드렸으며 또다시 2명의 소녀가 련거퍼 자기의 붉은 넥타이를 풀어 수상님께 매 드렸다.

부락민들의 열렬한 환영 대회에서 수상님의 연설이 끝나자 월남 민주 공화국 범 문동 수상과 하노이 시장이 직접 무르익은 빠나나를 아지채 메여 김 일성 수상에게 선물하였다. 계속하여 부락 사람들이 자기들의 농산물과 함께 화분, 여름모자까지 선물하였다. 대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속에 뒤 흔들렸다.

이튿날 아침 대표단은 불란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전투의 하나였던 비엔 디엔 프 전투를 묘사한 사관을 참관하였다.

이 전투에서 불란서 침략 군대 약 50만명이 영용한 월남 인민군에 의하여 몰살되였다.

사관 전람장에는 당시 불란서군 사령관이였던 까스트리란 자가 두팔을 쳐들고 애걸하는 사진과 함께 목숨으로 적화구를 막아 진격로를 열어 놓은 우리의 김 창걸 영웅과 같은 월남의 마뜨로쏘브—환 딘촛 영웅을 비롯한 많은 전투 공훈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월남의 조 옥회인 월남 유격대 영웅인 28세의 녀성 애국자 원 시점은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부모 그리고 오빠와 언니까지 모두 희생당하였다. 뼈에 사무친 이 원쑤를 갚기 위하여 그는 16세부터 빨찌산에 참가했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이 원쑤를 갚았다. 그러나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과 함께 남부 월남을 삼키려 한다.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두나라는 힘을 합쳐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다》라고.

환라리 소년단원들은 김 일성 수상님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여 드리였다.

동무들 새해 안녕하십니까? 나의 새해 첫 소식은 무엇일가요?

지난 1월 5일부터 민주 수도 평양에서 열리였던 대회를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였지요. 이 대회에서는 로동당의 령도 밑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진행한 협동화 운동의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고 앞으로 보다 살기 좋고 보다 행복한 사회주의 농촌을 꾸릴데 대해 의논하였답니다.

자! 그럼 날에 날마다 새행복으로 꽃피여나는 우리 나라 농촌을 나와 함께 날아가 봅시다.

→

1 보세요! 로동당이 가리키는 길에서 벌써 협동화를 끝낸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을!

지금 우리 나라 농촌의 가는 곳마다에서는 올해의 영농 준비와 함께 앞으로 2—3년내에 모든 밭에 물을 대이고 전기'불 밝은 마을에서 모든 일을 기계로 할 수 있게 하라는 로동당의 부름을 따라 모두가 그의 실천에 힘차게 나섰습니다.

← 동무들! 이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분들은 평북 의주군 8. 15 농업 협동 조합 조합원들인데 지금 압록강 물을 끌어 들이는 관개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공사가 끝나면 올해에는 이곳 신선봉 기슭 높은 지대의 밭으로부터 압록강 기슭에 이르는 750여 정보의 논 밭에 빈틈 없이 물이 흘러 들게 된답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 농촌의 모든 땅에 물 없는 고장이 없게되면 그 때의 우리 나라 농촌은 영원히 가물을 모르는 땅으로 해마다 풍년이 드는 땅으로 될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예요.

동무들 잠간! 이 깊은 자강도 화평군 산'골에서 웬 라디오 소릴가요? →

동무들 이 고장 아저씨의 말을 들어보면 이 의문은 곧 풀릴거예요

《로동당이 가리키는 대로 하면 않되는 일이라군 없단다. 우린 당이 하라는 대로 지난 12월에 조합원들 자체의 힘으로 소형 발전소를 건설했단다. 그래 지금은 이렇게 라디오도 듣게 된거란다》

이곳 화평군 중흥 농업 협동조합에서는 벌써 조합원들 집집마다에 이렇게 고성기 까지 가설했답니다. 앞으로 조합에서는 탈곡기, 제재기, 정미기들도 모두 전기로 돌리게 된다는거애요.

← 《아저씨, 여기선 무엇을 이렇게 많이 만드나요?》

《비료를 운반할 뜨락또르 련결용 발구란다. 올해에 우리는 논에서 정당 40톤의 알곡을 걷우기 위하여 자급 비료를 정당 150톤씩 낼수 있게 마련했는데 이것을 조합논 700여 정보에 달구지로만 운반하자면 375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달구지만 믿고 있을 수 없단다》.

평북 박천군 천리마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올해의 다수확을 위하여 벌써 지난해에 조합논 전체 면적에 30cm 깊이로 추경을 끝내였고 올해에 밀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 많이 필요되는 랭상모판도 지난해의 4배나 마련하고 이제 땅만 풀리면 락종할 모든 준비를 갖추었답니다.

이렇게 조합에서는 올해의 영농 준비 사업을 빈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이 자동차는 한번에 몇톤씩 운반하나요?》

《여섯 달구지분을 한번에 나른단다》

《참 일이 쉽게 되였군요》

《암 쉽구말구. 조합 생활 5년 동안에 달라진 것이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도 눈에 띄이게 달라진 것은 바로 나라의 덕으로 손로동을 뜨락또르, 자동차와 같은 기계로 하게된 것이란다》

평원군 상봉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비료 운반까지도 모두 자동차로 진행하고 있답니다.

머지않아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모든 작업을 이렇게 기계화 하게 될 것입니다.

농촌의 기계화를 위하여 당과 정부에서는 올해에 3,000대 이상의 화물 자동차와 3,500대 이상의 뜨락또르를 더 만들어 농촌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일이 헐하고 신나겠어요.

이것이 무엇인가구요? 북중 기계 공장 로동자 아저씨들이 농촌에 보내기 위해 만든 까스 발동기랍니다.

이곳 로동자 아저씨들은 농촌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를 위하여 더 많은 기계들을 생산하라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발판개에 필요되는 까스 발동기를 수 많이 만들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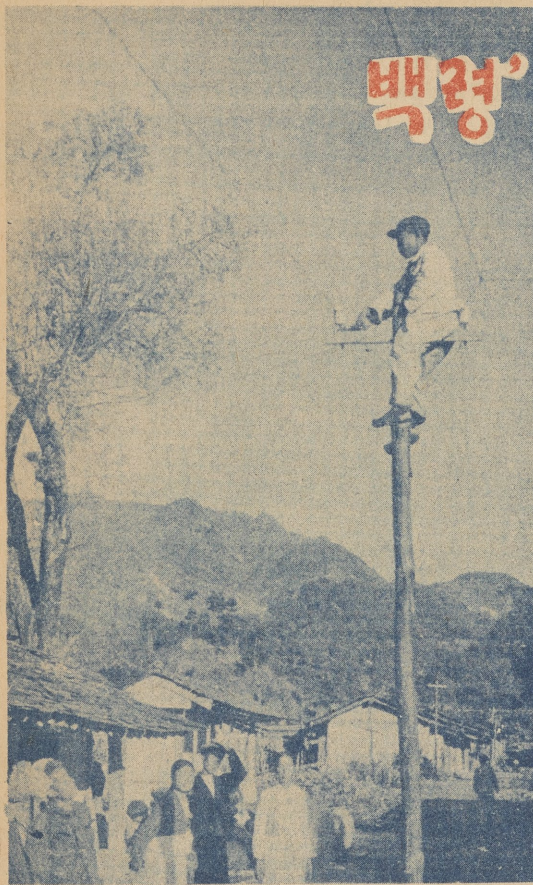
이 발동기들은 곧 농촌마다에 보내여질 것입니다. ↓

→

3 여기가 어덴가구요? 룡천군 산두리 근로자 학교랍니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근로자 학교 4개 학급과 근로자 중학교 5개 학급이 일제히 개교하였답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로동당의 부름을 따라 우리 나라 농촌의 문화 건설에 보다 훌륭히 참가하기 위하여 모두가 열심히 일하며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백령'골에 전기가 왔다

우리 마을은 커다란 함정속에 들어앉은 듯한 험한 산'골입니다. 글쎄 오죽하면 사람들은 우리 마을을 두고 백령'골 (령이 많다하여 이렇게 부른다) 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대낮에도 호랑이 오르내리고 밤이면 승냥이 떼들이 욱실거리는 그런 깊은 산'골이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마을에도 협동 조합이 조직되여 생활은 날마다 행복으로 꽃피여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한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기'불입니다.

마을에서는 대대로 광솔'불 아니면 등잔'불을 켜 내려왔고 고작해야 카바이트 불을 켜 왔으니까요.

그래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늘 전기'불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들의 힘으로 한번 전기를 일쿠어 보았으면 하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의 농촌을 전기화 할 데 대한 정책이 나오고 이것을 받들고 여러 고장들에서 수력 발전소며 풍력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련이여 들려 왔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은 나는 우리도 꼭 한번 전기를 일쿠어 보리라 하고 결심하게 되였습니다.

어느날 나는 학교에서도 재간둥이들이라고 불리우는 박 정태 동무와 차 국희 동무들을 만나 품었던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야, 우리의 힘으로 〈꼬마 발전소〉를 건설한다면야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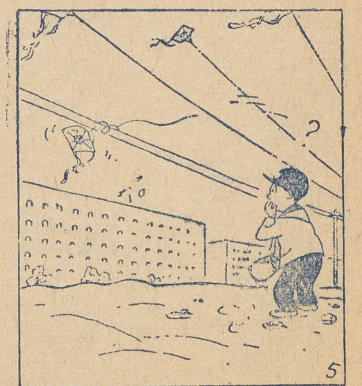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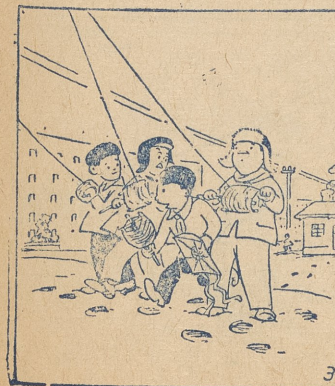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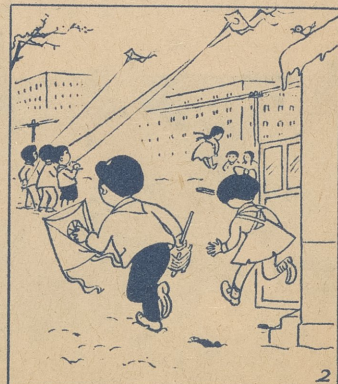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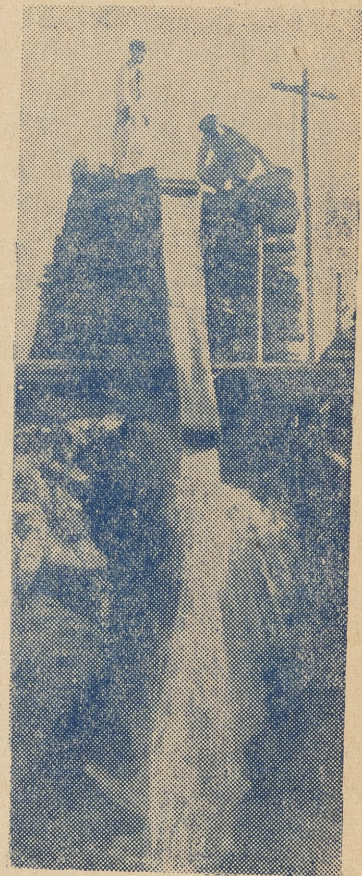
《나도 찬성이야》.

정태 동무와 국희 동무는 대 찬성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곧 대 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동무들 가운데서 《되지도 않을 일은 생각도 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동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 위원회는 우리의 제의를 지지하면서 7명으로 된 《전기 크르쇼크》를 조직했습니다.

《전기 크르쇼크》 원들은 물리 선생님의 지도밑에 《전기의 초보적 원리》 《전기와 우리 생활》 《물의 리용》 《자연 과학》 등의 책을 구해다 보면서 전기 상식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첫 사업으로써 학교 앞 개화천의 수량을 측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강의 넓이를 재고 평균 깊이를 계산해 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띄워 물의 분속 (분당속력)을 알아낸 후 체적을 구해 냈습니다. 이리하여 개화천의 수량을 가지고도 능히 2.5키로와트의 출력을 가진 발전기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였습니다.

그리고 수로 측량도 우리들의 힘으로 해 냈습니다.

인제는 꼬마 수력 발전소 건설 설계를 해야 했습니다. 《전기 크르쇼크》 원들은 모여 앉았습니다. 그런데 수차와 회전 바퀴들은 얼마나 크게 해야하며 락차의 수관 각

토는 몇도로 하며 수관은 얼마나 크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완성된 설계를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튿날 김 책 공업 대학과 수풍 발전소 기사장 아저씨에게 우리의 간절한 사정을 전하기로 하고 우편국으로 달려 갔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수풍 발전부 기사장 아저씨로부터 회답이 왔습니다. 아저씨는 우리의 일을 칭찬하면서 우리가 문의한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안까지 그려 보내 주시였습니다.

끄마 수력 발전소의 설계에 의하여 일은 착착 진행되였습니다.

대에서는 오디씨를 채취하여 수매시킨 돈으로 2.5 키로와트의 출력을 가진 발전기를 샀습니다.

수로 파기 작업이 시작되였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고루지 못하여 약 100m는 1.5m의 깊이로 수로를 파내야 했고 남어지 170m는 수로를 파는 것이 아니라 최고 2.7m 높이까지 둑을 쌓아 수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공부만 끝나면 수로를 파는 일에 달라 붙군 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10분의 휴식 시간마저 쉬지 않고 작업장으로 달려 나오군 했습니다. 작업장은 돌판이여서 계속 바위돌이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학교에 야장'간을 차려놓고 무딘 정을 벼루면서 바위를 쪼아냈습니다. 소년단원들의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겨났습니다.

마을의 예 광현 할아버지는 《그까짓 코흘리개들이 전기'불을 보개 해?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믿지 않으셨습니다.

때마침 마을에는 이동 영사대가 왔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우리의 일을 믿지 않는 일부 마을 어른들과 우리 동무들에게 끄마 수력 발전소는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신심을 넣어 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영사대의 발동기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온 발전기를 회전시켜 100촉 짜리 전등 두등을 켰습니다. 나는 켜진 전등'불을 들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전기는 신기한 것이 아니며 그 어떤 힘으로라도 발전기만 돌린다면 이렇게 전기를 일굴 수 있다고,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끄마 수력 발전소의 건설은 헛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여 우리는 어려운 수로 작업을 완공해 냈습니다.

인제는 수차를 만들며 피대, 회전축, 회전 바퀴들을 구하는 일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일요일이면 100리 길이나 되는 군 소재지로 달려가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남정 농업 협동 조합 아저씨들은 우리의 이와 같은 열성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던 수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수차를 설치하고 학교와 마을에 전주'대를 찍어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선을 늘여 놓았습니다.

드디여 시운전이 시작되였습니다. 수문을 열자 수차가 요란스럽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피대로 련결된 발전기 회전바퀴도 뒤쫓아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불은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양철떠를 씌운 바퀴가 매끄러워서 이따금 피대만 헛돌군 하여 회전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였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생각끝에 바퀴둘레에 고무를 대워 부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마을에는 짝 전기'불이 켜졌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은 문을 열고 정신 없이 뛰여 나오는 사람, 《전기'불이 왔다—》고 웨치는 사람들로 와짝 들끓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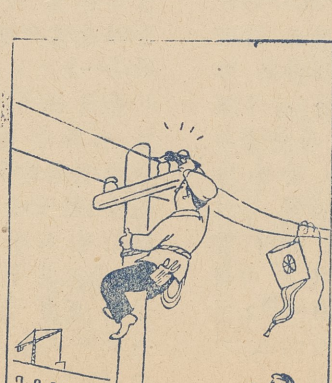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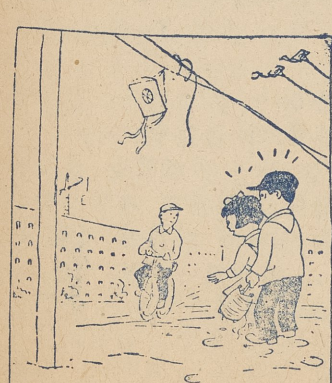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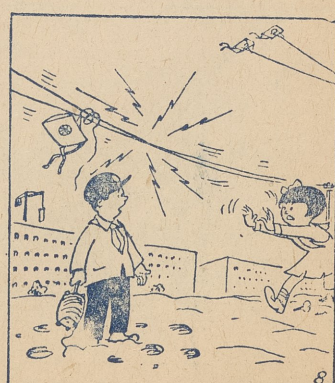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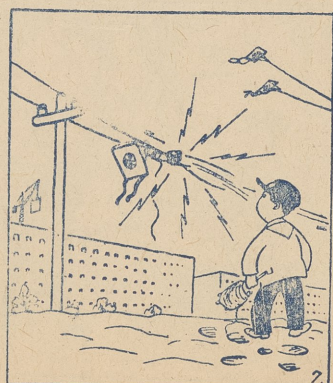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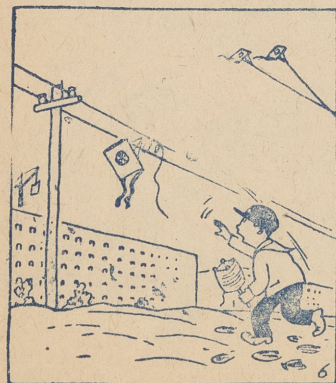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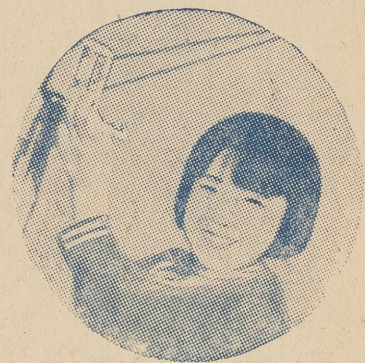
우리들도 얼싸 안고 두둥실 춤을 추었습니다.

《허허…정말 전기'불을 보게 하고야 마는군……》.

예 광현 할아버지도 벙글벙글 웃으시며 감탄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노력은 훌륭한 열매를 맺았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집집마다에 유선 방송이 놓이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마을 협동 조합 민청원 형님들이 보월강 물을 막아 보다 큰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온 마을은 전기'불 밑에서 흥겹게 지내며 탈곡, 정미, 제분 등 모든 것을 전기의 힘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평북 구장군 우현 중학교
강 제복

10월에 있은 대위원회에서 리 춘덕 동무와 박 하자, 김경지 동무들은 집에서 기르던 토끼를 학교에 모아다 공동으로 키우자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집에서 기르자면 많은 품이 들며 사료를 마련하기도 힘 들지만 공동으로 기르면 서로 힘을 모아 손 쉽게 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끼의 습성을 관찰하며 실험 실습하기도 편리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이 제의를 모두 찬성해 나섰습니다. 이리하여 분단들에서는 자기들의 계획에 의하여 토끼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4분단에서는 방과후를 타서 반별로 서로 경쟁하면서 토끼사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 수빈 동무만은 이틀씩이나 배가 아프다면서 슬쩍 빠졌습니다.

이전부터 자기 일이라면 기를 쓰고 나서는 수빈 동무에게 이번 일은 더욱 마음 내키지 않았습니다.

《흥! 내가 애써 기른 토끼를 왜 분단에 가져 온담》하고 그는 자기 토끼를 내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빈 동무는 다음날 방과후에도 집일이 바쁘다면서 슬쩍 빠져 집에 가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토끼 우리를 들여다 보니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수빈 동무는 마을 꼬마들과 성천 강'가로 고기 잡으려 갔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으면서 이웃집 염 봉녀 동무가 토끼를 못사서 안달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빈 동무는 좋은 수가 생겼다고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새끼 토끼는 팔고 어미 토끼 한마리만 분단에 가져 가리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수빈 동무는 봉녀 동무에게 새끼 토끼 세마리를 팔아 치웠습니다. 그리고 동무들에게는 토끼가 밤새 병이 나서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깜쪽 같이 속은 분단 동무들은 여간 아수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 홍범 동무만은 머리를 끼우뚱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오면서 봉녀 동무가 토끼 세마리를 샀다고 기뻐하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틀림 없이 수빈이가 팔았어》하고 생각하니 친한 동무라고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홍범 동무는 곧 이일을 벽보 편집 위원회에 말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가요?》라는 지상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빈이는 집에서 기르던 토끼를 공동으로 함께 기르면서 실험 관찰하며 다 같이 일하는데 참가하기 싫어서 토끼를 팔았습니다. 수빈인 돈만 알고 분단은 생각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가 이런 것을 하게된 것은 분단이나 학교의 리익보다 자기 것만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빈이처럼 자기 혼자 많이 키워서 돈을 벌며 뽐내 보려는 생각은 곧 개인 리기주의이며 지주나 자본가의 생각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홍범 동무의 뒤를 이어 날마다 벽보에는 새로운 기사들이 나 붙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늘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동무들과 분단은 어떻게 되던 말던 아는체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한결 같이 충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수빈 동무는 얼굴에 그늘을 지어가지고 동무들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어떻거나 수빈 동무를 고쳐주기 위해 11월 초에 토끼사 짓는 일이 끝나자 토끼 기르는데 취미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를 토끼 관리반 반장으로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수빈 동무는 분단에서 주는 위임을 그리 달가와 하지 않았습니다.

토끼 관리반 반장이 된 후에도 그는 분단의 토끼를 자기 집 토끼처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토끼만 자주 들여다 보면서 병이 날가봐 걱정했습니다. 그럴 수록 분단 열성자들은 그에게 사료를 마련하는 일이며 당번을 짜는 일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며 일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토끼를 길러 온 경험이 있는 그에게 《토끼를 키워 온 나의 경험》을 준비시켜 동무들 앞에서 이야기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분단의 토끼 가운데서 병난 토끼가 세마리나 있었습니다. 빳빳하던 귀가 늘어지며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걱정에 쌓인 분단 동무들은 해가 질 때까지 토끼사 앞을 좀체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빈 동무는 태연스러웠습니다. 분단 지도원 선생님은 그만 집으로 돌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홍범 동무는 앓는 토끼를 안고 걱정하면서 가축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했다고 선생님과 동무들이 기뻐하자 홍범이와 경지 동무가 토끼를 안고 가축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동무들과 수빈이는 이 광경을 보고 여간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홍범이가 다 저렇게 애쓰는데 반장인 내가 모르는체 할 수 있을가?) 뛰여 가는 두 동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빈 동무는 얼굴을 붉히며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홍범이, 경지 동무와 함께 토끼에게 주사를 맞쳐 온 후에도 수빈 동무는 당번이 아닌데도 밤에 나와 앓는 토끼를 돌보아 주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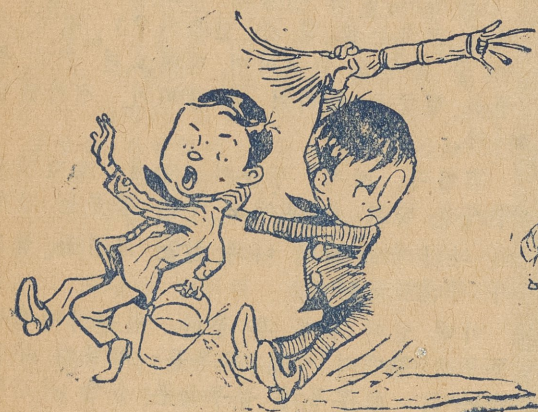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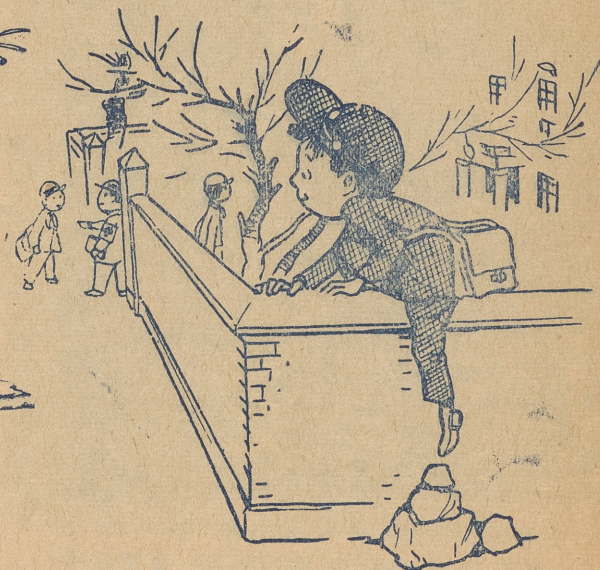
이런 일이 있은 후 분단 위원회에서는 동무들 앞에서 수빈 동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후부터 동무들은 실습 시간에 토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있게 대답하는 토끼 관리반 반장인 수빈 동무를 《꼬마 토끼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자 수빈 동무는 토끼 관리반 반장이 된 것을 더 없이 영예롭게 생각하면서 누구 누구 토끼 할것 없이 분단의 토끼를 일일히 돌보아 주군 했습니다. 날이 갈 수록 수빈 동무는 토끼를 판 지난날의 자신을 후회하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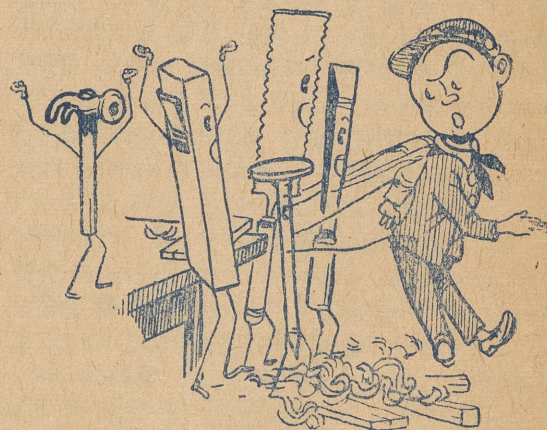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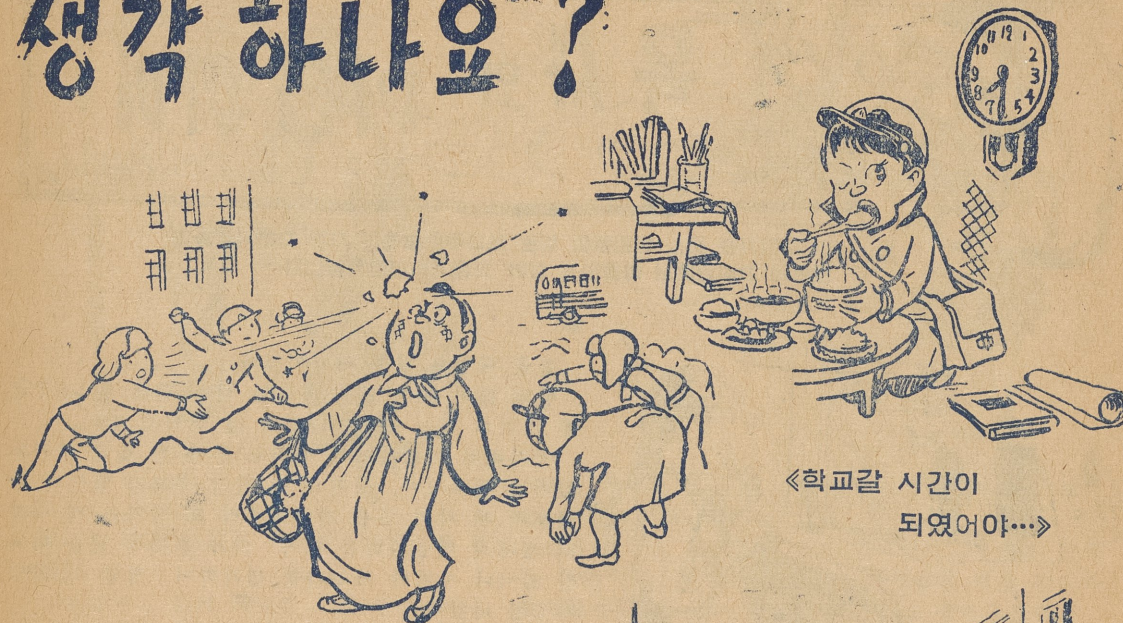
분단 벽보에서 《나의 잘못은?》이라는 다음과 같은 그의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제야 나는 지난날의 잘못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자기 것은 분단에 가져오기 싫어서 동무들 몰래 토끼를 팔거나 페품을 수매시켜 사탕을 사 먹으며 남이야 어떻게 되던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집단의 것보다 자기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생각, 나는 이런 생각을 깨끗이 버리겠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에서 자라나는 소년단원이 이처럼 지주 자본가들의 생각과 비슷한 나쁜 생각을 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홍남 제 8중학교 대에서

본사 기자 박 정렬

이런 아이를 어떻게 생각 하나요 ?

《참을수 없는 일》

《급할 때는 슬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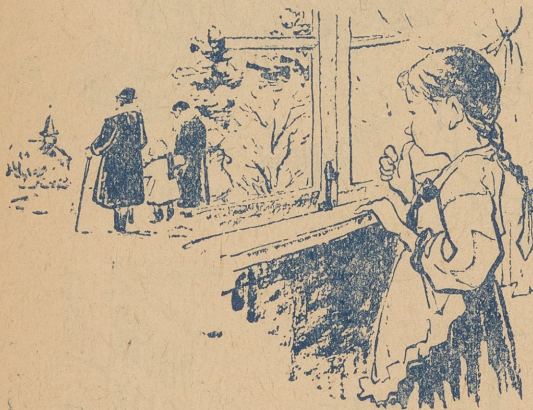
《운동장 아닌 운동장》

《얘, 얘! 학교 물건들을 쓰고
그냥 가면 어떻가니》

《길 가던 아주머니의 봉변》

《학교갈 시간이
되였어야…》

《장난' 군》

《이런 아이도 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인민들이 일본 제국주의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의 압박과 착취밑에서 억울하게 살아 오던 때 이야기입니다

←

설을 래일로 앞둔 저녁이였다.

땅도 많고 돈도 많은 부자인 리 목사는 온 가족을 을 데리고 어느 큰 부자 집에 설 놀이를 갔다.

목사네집 머슴아이인 선희는 혼자 빈 집을 지키고 있기가 외로웠다. 선희는 왜 자기 부모가 일찌기 죽었으며 왜 자기 집은 가난했으며 또 자기는 왜 목사네 집에서 머슴사리를 하며 뼈가 휘도록 일을 하고 빈 집이나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자꾸만 나왔다.

→

바로 그때였다. 문을 두드리며 어떤 소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넌 누구냐?》.

《난 공장에서 쫓겨 났어! 부모두 없구 집두 없구! 그래 너무 배가 고파서 들어 왔어!》.

《에구 불상해라! 저일을 어쩐담?》

선희는 그 소년이 불상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

선희는 소년에게 맛진 빵을 가져다 주었다. 배고프던 소년이 빵을 맛지게 먹는 것을 볼 때 선희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다.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던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야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그래 선희는 목사님의 말대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였다.

↑

소년은 빵을 배불리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다! 굶어 죽을걸 살게 됐어!》.

《공장에 취직을 해야지 야단이로구나! 배고프면 뒤'문으루 또와. 내밥이라두 줄께!》

《고맙다!》.

소년은 인사하며 밖으로 나갔다.

↑걸걸 거리고 있던 목사는 밤참 잔치로 차비한 음식을 들여 오라고 하였다.

선희는 상을 무거웁게 들고 들어왔다. 부인은 음식을 식탁 우에 채려놓는다. 온 가족들은 명절 잔치가 즐거워서 서로 웃고 떠들며 식탁으로 몰려들었다.

음식을 채리던 부인이 깜짝 놀래였다.

빵 접시의 한 모퉁이가 헐려 있는것이다.

《이년이 숫 그릇에 손을 댔구나!》.

《아니예요! 불쌍한 아이가 왔기에 조곰 주었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왜 네 마음대루 해?》.

부인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무서웠다.

그러자 목사의 딸이 선희의 빰을 후려갈겼다.

《왜 네 마음대루 해? 네가 이집 주인이야?》.

《목사님이 불쌍한 사람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구 하시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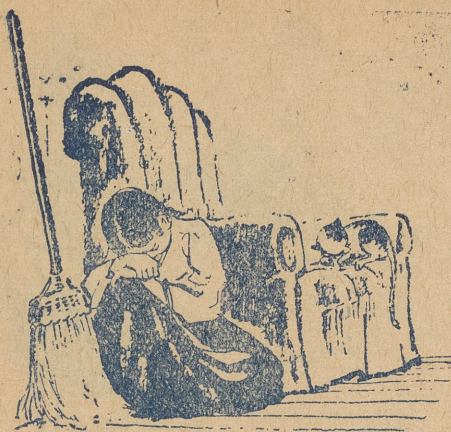
《엑키 고약한 년…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않된다!》.

↓목사도 눈을 부라리자 그만 선희는 느껴울었다.

↑

얼마 후에 목사네 가족들은 돌아왔다, 명절 노리에 갔던 목사네 딸이랑 아들은 기뻐 날뛰며

《오늘 음악이랑 노래는 참 재미 있었어》하며 재잘 거렸다.

선희는 혼자 슯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더니 왜 자기는 고된일만 시키고 목사네 아이들만이 즐겁게 노는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 스러웠다.

↑이윽고 잔치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 누웠다. 선희는 한편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린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겠죠?》.

《암! 받구 말구! 너희들은 착한 하나님의 아이들인데……두고 봐라, 너희들은 인제 듬뿍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께다!》.

《난 자지 않구 기다릴 테야!》.

이와같이 떠들며 기뻐하다가 모두 잠이 들었다 선희는 생각했다. 불쌍한 아이에게 빵을 준게 무엇이 잘못인가? 그래 하나님은 자기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을가? 생각하면 울고만 싶었다.

↑밤이 몹시 깊었다. 졸고 있던 선희가 눈을 뜨고 보니 웬 할아버지가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메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목사네 딸과 아들에게만 선물을 주고는

《착한 아이들아! 잘 자거라!》

하고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였다.

↑선희는 분하였다. 그래 달려 나가며 할아버지를 붙들었다.

《할아버지! 제게는 왜 선물을 않주나요?》.

《너는 하느님의 허락이 없는 일을 했다!》.

《그렇지만 불쌍한 아이를 동정했어요!》.

《그게 나쁘단 말이야!》.

하고는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선희는 할아버지를 또 따라가며 붙들었다.

《저는 목사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만 했어요 선물을 주세요!》.

《않된다!》.

할아버지는 뿌리치고 나가다가 그만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 서슬에 머리에 썼던 모자가 벗겨지고 얼굴에 달았던 수염이 떨어졌다. 그것은 선희와 아이들이 믿어오던 하나님이 보낸 할아버지가 아니라 목사였다. 선희는 깜짝 놀래였다. 그리고 소리 높이 웨쳤다.

《아! 속았구나! 하나님! 목사님!

↓모두 거짓말이였어!》.

영수…할아버지 새해 안녕하십니까!

척척 할아버지…

오냐! 새해를 축하한다. 올해도 과학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무엇이던 다 물어 봐라.

영수…할아버지 그럼 한 가지 묻겠어요. 겨울에 강물은 왜 그 표면으로부터 얼기 시작하나요?

척척할아버지…

가만 있자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물은 몇도에서 얼게 되지?

영수… 거야 령도 이하가 되면 얼지요 뭐

척척할아버지…

그렇지, 물은 보통 기온이 령도 이하로 낮아질 때 얼기 시작한단다. 그런데 강물은 바깥 추위에 의하여 표면이 랭각되면 밑에 층의 물보다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 앉고 밑에 층에 있던 온도가 높은 물이 우로 올라 온다.

이와 같은 물의 순환 운동은 물의 온도가 섭시 4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강물 전체가 4도에 달하였을 때에는 우에 층의 물이 계속 랭각된다 할지라도 아래 층의 물은 우로 올라오지 않는다. 왜냐 하면 물은 섭시 4도에서 가장 큰 밀도를 가지며 따라서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물 전체가 일단 4도에 달하면 우에 층의 물은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계속 랭각되고 령도보다 낮아지면 그의 표면이 얼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수… 할아버지! 그럼 물의 수량이 적은 강일 수록 먼저 얼겠군요.

척척할아버지…

그렇단다. 물의 수량이 적으면 그만큼 순환 운동이 빨리 끝나게 되고, 또 많으면 역시 그만큼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수량이 적은 강일 수록 빨리 얼게 된단다.

영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물이 깊은 곳보다 옅은 기슭이 먼저 얼게 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군요.

척척할아버지…

허허… 이젠 완전히 리해한 모양이구나.

영수… 할아버지 또 한 가지 묻겠어요. 눈 오는 겨울날은 왜 춥지 않으며 눈 온 뒤에는 대체로 공기가 맑아지나요?

척척 할아버지…

아니 그것도 몰라! 곰곰히 생각해 보아라, 눈은 무엇이 변하여 된거지?

영수… 공기중에 섞여 있는 수증기가 얼면서 변한

거지요 뭐!

척척할아버지…

그렇다. 눈은 대기중에 섞여 있던 수증기가 얼면서 고체로 변하여 떨어지는 것이란다. 그런데 수증기가 눈으로 변할 때에는 반드시 열을 내기 때문에 눈 오는 날은 날씨가 훈훈해지는 법이지.

그리고 눈 온 뒤에 공기가 맑아지는 것은 눈이 땅 우에 내려오면서 공기중에 있는 먼지와 기타 어지러운 물건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알겠니?

영수… 그것 참 그럴듯 한데요.

척척할아버지…

그럴듯 하다니? 분명히 그렇지 하하…

영수…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우린 요새 참 야단났어요.

척척할아버지…

아니 갑짜기 또 무슨 야단이야?

영수… 글쎄 요새 날씨가 계속 추워지드니만 우리 분단에서 기르고 있는 닭들이 알을 낳지 않거든요. 모이는 계속 주는데두 까닭을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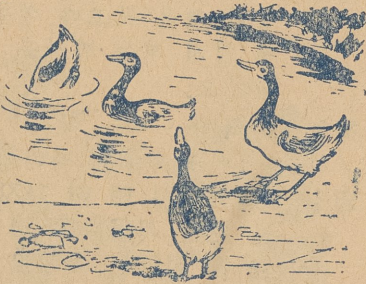
척척할아버지…

그럼 아마 닭들이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닭우리가 제대로 되여 있지 못한 게로 구나, 그렇지?

영수… 아니 닭우리가 어떻게 되여 있어야 해요?

척척할아버지…

허허… 그럼 내 먼저 재미 나는 이야기부터 해 주지, 닭은 현재도 인도 산림 속에 살고 있는 "반키바"라고 부르는 야생닭에서 기원되였단다. 약 5천년 전에 처음으로 이 야생닭은 인도에서 길들였고 거기에서 세계 각국에 퍼져 갔단다.

그늘진 산림속 따뜻한 인도에서 살던 야생닭 "반키바"에서 기원된 집닭은 추위나 더위에 잘 견디지 못한단다. 태양이 몹시 내려 쬐이는 더운 여름날 숨어 있을 곳이 없거나 찬바람 사납게 불어 대는 겨울날 바람바지가 제대로 되지 못한 우리에서 지내게 되면 암탉은 알을 낳지 못한다. 때문에 닭우리는 항상 적당한 온도가 보장되여야 하며 양지바른쪽에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도록 되여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추위와 더위, 비와 바람을 막아 주면서 그의 생활에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영수… 알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닭은 왜 작은 돌도 쪼아 먹나요?

척척할아버지…

닭은 통채로 먹은 낟알이나 작은 돌을 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소화기를 가지고 있단다. 즉 대단히 두꺼운 위벽과 강력한 근육으로 된 위가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닭이 쪼아 먹는 낟알은 위가 수축할 때마다 위내에서 작은 돌과 마찰되면서 부슬어 진다. 이렇게 닭이 쪼아 먹은 작은 돌은 닭이 낟알을 소화하는 것을 도우며 돌이 들어간 위는 닭에 있어서 이'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영수… 그것 정말 재미 있군요.

척척할아버지…

과학이란 알면 알수록 재미 있는 거야,

영수… 할아버지 또 하나 묻겠어요. 오리는 왜 물 속에 들어 갔다 나와도 털이 젖지 않나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공장

쏘련 중앙 아세아 우즈베끼쓰딴의 잠바 타면 공장은 한 사람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앙 조종대에서 한개의 스위치를 누르면 온 공장 기계들—기압식 수송장치, 환기장치, 공기려과 장치가 한꺼번에 돌아 갑니다.

기계의 시동 뿐만 아니라 관리, 조절 고장도 특수 장치에 의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장들이 이렇게만 된다면 로동자 아저씨들의 일손을 얼마나 쉽게해 주겠습니까.

척척할아버지…

먼저 내 물음에 대답해 봐라, 오리나 거위의 털이 왜 반질반질 윤이 도니?

영수… 그건… 에……

척척할아버지…

하하… 그러니 그 리유를 모르는게다. 자 들어봐라. 오리나 거위의 우모는 항상 특별한 선에서 내 보내는 기름으로 덮여 있어 윤이 나는거야, 알겠니? 오리나 거위는 이 선에서 나오는 기름을 주둥이로 온 몸에 바른단다. 그렇기 때문에 털에는 언제나 기름이 묻어 있어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영수… 그렇게 쉬운걸…

척척할아버지…

모르면 무엇이든 힘들고 알면 무엇이든 쉬운 법이지

영수… 할아버지, 또 하나 가르쳐 주세요. 소는 짬만 있으면 서서도 질근질근 누워서도 질근질근 무엇을 자꾸만 씹는데 그건 왜 그러나요?

척척할아버지… 색임질 하는거지,

영수… 색임질이라니요?

척척할아버지…

아니 색임질두 몰라? 소란 짐승은 반드시 먹었던 식물을 다시 꺼내 색임질 한단다.

영수… 하하… 원 할아버지두 먹었던 걸 어떻게 또 꺼내요.

척척할아버지…

허! 누가 롱담을 하는줄 알구— 잘 들어 봐라, 그것은 소나 노루와 같은 풀 먹는 동물들이 갖고 있는 생활상 특징이란다.

소는 풀을 먹을 때 처음엔 씹지 않고 삼켜 넘긴다. 삼켜 먹은 식물은 용적이 18리터나 되는 제 1위에 들어 가고 얼마 후에 다음 부분인 제 2위로 넘어 간다.

식물이 제 2위에 차게 되면 소는 쉬려고 눕는다. 이때부터 소는 제 2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입으로 조금씩 내다가 천천히 씹어서 죽같이 만든다.

잘 씹어진 식물은 제 1위로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제 3위로 직접 흘러 들어가고 다시 제 4위로 넘어가 완전히 소화된다.

이렇게 소의 위는 4개의 방 즉 제 1위, 제 2위, 제 3위, 제 4위로 구분되여 있는데 첫 세 부분의 위는 식도가 변하여 된 것이고 진짜 식물을 소화하는 위는 제 4위이다.

때문에 소는 처음에 씹지 않고 삼켜 넘긴 식물을 일정한 시간에 가서 반드시 색임질 하는 것이다. 알겠니?

영수… 할아버진 정말 모르는게 없군요!

척척할아버지…

엑키놈! 나는 척척할아버지야!

영수… 하하… 그럼 다음 달엔 정말 어려운 걸 물어볼테야요.

척척할아버지…

글쎄 어떤거든지 물어봐라 척척 대답하지 않으리!

로케트려행 (5)

친애하는 독자 동무들! 새해의 축하를 드립니다.

새해 벽두에 나는 동무들에게 아프리카주의 식민지 나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란서 침략군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는 알제리아 인민들과 소년들의 새해 생활은 어떠할가요?

(1) 나의 로케트는 설날 아침에 알제리야 수도인 알지의 부근 농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진탕망탕 처먹으며 설놀이 하던 불란서 침략군놈들은 창문으로 들여다 보는 애를 막 쏘아 눕히고 축배를 드는군요.

(2) 《여기가 너희네 학교냐?》.

《응. 우리 학교야, 그렇지만 우린 이렇게 쫓겨났어 불란서 침략군놈들 한테…》.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불란서 침략군 놈들을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3) 《학교를 빼앗기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없어, 우리도 유격대 아저씨들을 도와 싸우는 것이 어때?》. 한 아이가 나서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애들도 《그래 우리도 용감히 싸우자…》하고 주먹을 쳐드는 것이였어요.

(4) 어느 항구에 도착한 나는 부두에서 매를 맞는 한 로동자를 보았어요. 불란서 침략군 놈은 자기 나라에 실어가는 쌀을 빨리 싣지 않는다고 이 모양이군요.

《그래 너도 여기서 일하니?》 한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묻는데 갑짜기 야자수 나무 숲속에서 총소리가 들리겠지요, 웬 일인가 했더니 인민 유격대원들이 불란서 침략군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어요.

(5) 동북 해안 도시인 본을 해방시킨 민족 해방군과 인민 유격대원 아저씨들은 누더기 옷을 입은 애들을 끌어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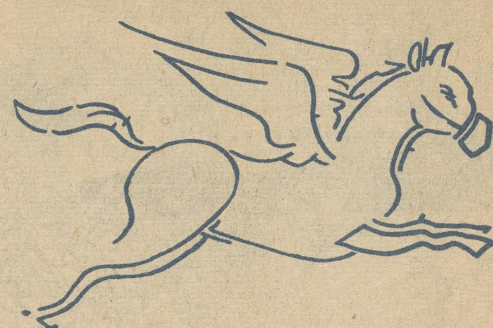
나는 이들의 승리를 축하하여 만세를 소리 높이 불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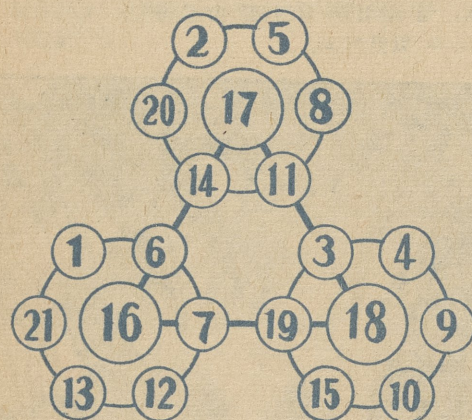
(6) 《우리 조선 소년들은 동무들의 용감한 투쟁을 지지 성원합니다. 새해엔 보다 용감히 싸우리라 믿습니다》.

꼬마 유격대원들을 만난 나는 조선 소년들이 보내는 새해 인사를 전했지요. 그러자 이들은 《미제를 무찌르는 싸움에서 영웅성을 떨친 조선 인민들과 소년들의 모범은 우리의 투쟁을 항상 고무해 주고 있습니다》하고 말했어요.

나는 그들과 굳은 악수를 한후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못하였다고 성급히 나무래지 마시오. 사실은 이 그림은 우리들의 생활과 깊이 관련되여 있는 11자의 글자로 되여 있답니다.

동무들! 자 그럼 무슨 말로 되여 있을가요?

문제를 낸 사람
함남 회조군 마전 중학교
제 3학년 리 수례

11호 현상 문제 해답 및 당선자

모범 답안
함남 덕성군 주의동중학교 호 청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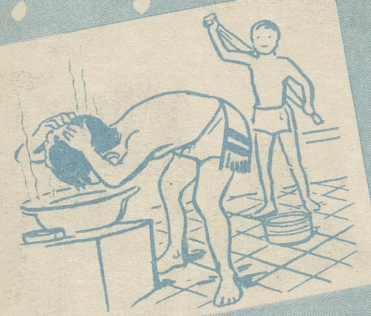
평북 창성군 창성 고중(초급반) 김 길정
평양 제 43 중학교 한 정남
강원도 통천군 통천 중학교 리 형근
황해남도 온천군 정동 중학교 변 정숙
평양시 제 19 중학교 주 영국
강원도 원산 사범부속 인민 학교 유 관익
함경북도 회령 제 1중(인민반) 서 경희
자강도 희천군 희천 중학교 리 성일
평남 문덕군 인흥 중학교(인민반) 리 원순
함북 김책군 제 6 중학교 리 종선
자강도 강계시 의룡 중학교 박 린배
개성 만월 중학교(인민반) 고 순애
평남 남포시 제 5중(인민반) 조 영자
평북 동림군 동림 3중 학교 리 원일
량강도 후창군 제 3중 학교 김 영복
함남 광천군 동남 중학교 리 아정
개성지구 개풍군 묵산 중학교 리 만춘
량강도 보천군 포태 인민 학교 김 주철
황북 연탄군 월롱 인민학교 박 회숙
싸하린주 뽀로나이쓰크 구역 마뜨로쏘브
촌 7년제 중학교(인민반) 주 명숙

편집 위원 김 학연 (주필) 강 효순 림 홍은 박 응호
송 정우 정 래선 조 순형

1959년 1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9년 1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9년 제 1호 (총 111호)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75342 값 25 원 150,000부 발행

겨울철의 위생

1 목욕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푹 하며 머리를 자주 감자

2 의복을 항상 깨끗이 빨아 입으며 내의를 자주 갈아 입자

3 옷과 침구는 항상 먼지를 깨끗이 털며 방안을 깨끗이 청소하자

4 입었던 옷을 삶던가 증기로 쪄서 "이"와 "이"알까지 모주리 죽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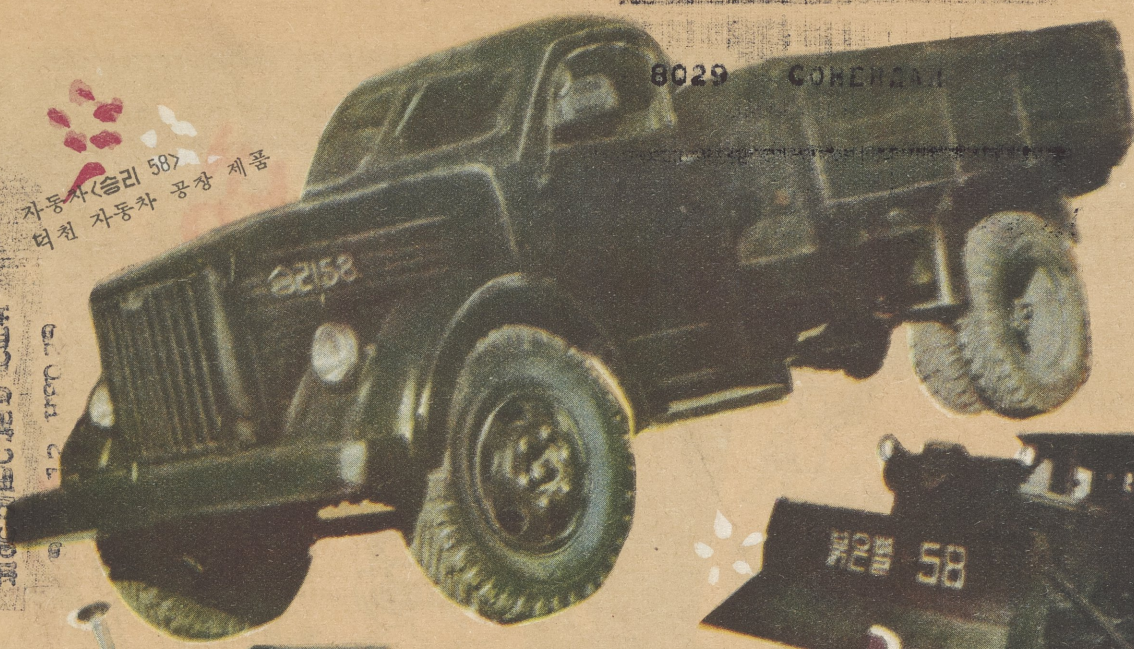
5 이약(헥사크로랍, 디·디·티)을 옷에 바르던가 "이"약 주머니를 차자

6 때때로 문을 열고 방안 공기를 맑게 하며 틈과 쥐구멍을 막자

7 실내에 해볕이 잘 쬐게 유리를 깨끗이 닦고 창문을 밝게 하자

8 아침마다 조기 체조를 하고 몸을 튼튼히 하자

자랑찬 승리

자동차〈승리 58〉
덕천 자동차 공장 제품

불도젤〈붉은별 58〉
북중 기계 공장 제품

뜨락또르〈천리마〉호
기양 기계 공장 제품

전기 기관차〈전기화 58〉
대안 전기 공장 제품

오토바이〈천리마〉호
평양시영 산업 철재 공장 제품

엑쓰까와또르〈천리마〉호
락원 기계 공장 제품